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컬러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윤 호 정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컬러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 연구

문 윤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윤 호 정

# 인 준 서

윤호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 문 개 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여성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퍼스트레이디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중 한명으로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패션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퍼스트레이디들은 그 시대의 패션아이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며 퍼스트레이디들이 사용하는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에서도 컬러는 가장 쉽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디자인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미국,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영국 왕세자비의 패션 컬러에 따른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퍼스트레이디들의 역할과 패션 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과정을 국가행사,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으로 나누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라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외인터넷사이트 ‘www.gettyimages.com’의 자료를 주로 하여 국내외 기사 및 블로그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의 기준은 퍼스트레이디로써의 기간에 한했다.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인물별 패션에 대한 컬러 이미지의 특징을 고찰하고 분석하였고, 컬러의 분석 기준은 Munsell Color System을 기준으로 색을 판별하였으며, ‘www.iricolor.com’ I.R.I.의 색채분석체계인 ‘Hue & Tone 120체계’, ‘단색 이미지 스케일’을 바탕으로 컬러를 분석하였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셸 오바마는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모던’, ‘에스닉’ 이미지가 나타났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밝은 성격의 소유자답게 다양한 컬러의 의상을 선택하여 T.P.O.에 적합한 패션을 연출하였다. 또한 과감한 프린트가 있는 에스닉한 느낌의 의상을 착용하여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주로 연출한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달리 개성있고 자신감있는 당당한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행사 시의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엘레강스’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P, B, R, Y, Multi Color, G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엘레강스’, ‘페미닌’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Y, Multi Color,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접견 시의 패션 이미지는 ‘엘레강스’, ‘페미닌’, ‘모던’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R, P, Multi Color, G, Y계열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액티브’, ‘에스닉’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Multi Color, R, B, Y, G,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에스닉’, ‘액티브’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Multi Color, P, R, Y, G계열순으로 나타났다.

케이트 미들턴의 패션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케이트 미들턴은 ‘클래식’, ‘아방가르드’,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이미지가 나타났고, 왕실의 상징인 색인 로열블루의 의상을 자주 착용하였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헤드기어를 착용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국가행사 시의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R, Y, G계열순으로 나타났고, 외교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아방가르드’, ‘엘레강스’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B, R, Y, 무채색, G, P, Multi Color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접견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엘레강스’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Y,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R, Y, G, Multi Color,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페미닌’, ‘액티브’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B, 무채색, G, Multi Color순으로 나타났다.

카를라 브루니의 패션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카를라 브루니는 ‘클래식’, ‘매니쉬’, ‘엘레강스’, ‘모던’ 이미지가 나타났고, 무채색계열의 의상을 주로 착용하여 매니쉬하면서도 단정하고 세련된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국가행사 시의 패션 이미지는 ‘엘레강스’, ‘클래식’, ‘페미닌’, ‘매니쉬’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외교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P, Y, R계열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접견 시의 패션 이미지는 ‘엘레강스’, ‘페미닌’, ‘클래식’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P계열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모던’, ‘엘레강스’, ‘매니쉬’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B, Y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활동 시의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페미닌’ 이미지가 나타났고, 패션 컬러 이미지는 무채색, Y, B계열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 정치인, 여성 지도자, 여성 전문가 및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도 넓어져 자신의 이미지 표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퍼스트레이디의 국가행사,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에 따른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각국의 문화와 정서, 사회적 상황, 배경 등

그리고 퍼스트레이디의 성격 및 취향에 따라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문적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격 및 취향을 바탕으로 직업이나 활동영역에 적합한 세련되고 긍정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패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II. 이론적 배경 .....	5
1. 퍼스트레이디 .....	5
2. 패션 이미지 .....	12
3. 컬러 이미지 .....	18
III.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컬러 이미지 .....	30
1. 미셸 오바마 .....	33
2. 케이트 미들턴 .....	56
3. 카를라 브루니 .....	79
IV. 결론 .....	105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목 차

< 표 1 > 컬러 이미지 .....	25
< 표 2 > 미셸 오바마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	55
< 표 3 > 케이트 미들턴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	78
< 표 4 > 카를라 브루니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	101
< 표 5 >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이미지 .....	103
< 표 6 >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분석 .....	104

## 그 립 목 차

< 그림 1 > 클래식 .....	17
< 그림 2 > 아방가르드 .....	17
< 그림 3 > 매니쉬 .....	17
< 그림 4 > 페미닌 .....	17
< 그림 5 > 엘레강스 .....	17
< 그림 6 > 액티브 .....	17
< 그림 7 > 모던 .....	17
< 그림 8 > 에스닉 .....	17
< 그림 9 > I.R.I Hue & Tone 120 System .....	29
< 그림 10 >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	36
< 그림 11 > 미국 재향군인의 날 행사 참석 .....	36
< 그림 12 > 2012년 대선 2차 토론회 참석 .....	36
< 그림 13 >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	36
< 그림 14 > 미셸 오바마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37
< 그림 15 > 미셸 오바마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38
< 그림 16 > 2009년 G20 정상회담 영국도착 .....	40
< 그림 17 > 인도 방문 .....	40
< 그림 18 > 영국 방문1 .....	40
< 그림 19 > 프랑스 출국 .....	40
< 그림 20 > 미셸 오바마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41
< 그림 21 > 미셸 오바마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42
< 그림 22 > 2011년 한미정상회담 극빈만찬 .....	44
< 그림 23 > 2011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백악관 방문 .....	44
< 그림 24 > 2009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알현 .....	44
< 그림 25 > 2009 NATO회담 프랑스 방문 .....	44
< 그림 26 > 미셸 오바마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45

< 그림 27 > 미셸 오바마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46
< 그림 28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행사 .....	48
< 그림 29 > DC School and Garden 방문 .....	48
< 그림 30 > 올림픽 선수 백악관 초청 행사 .....	48
< 그림 31 > NEA's Read Across America Kickoff 행사 .....	48
< 그림 32 > 미셸 오바마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49
< 그림 33 > 미셸 오바마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50
< 그림 34 > 교회 예배 .....	52
< 그림 35 > 모스크바 여행 .....	52
< 그림 36 > 백악관 도착 .....	52
< 그림 37 > 아프리카 여행 .....	52
< 그림 38 > 미셸 오바마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53
< 그림 39 > 미셸 오바마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54
< 그림 40 > 약혼식 .....	59
< 그림 41 > The St Patrick's Day .....	59
< 그림 42 > 엘리자베스 여왕 주최 Garden Party .....	59
< 그림 43 > 여왕 생일 퍼레이드 참석 .....	59
< 그림 44 > 케이트 미들턴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60
< 그림 45 > 케이트 미들턴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61
< 그림 46 > 캐나다 National War Memorial 방문 .....	63
< 그림 47 > The Canada Day Parliament Hill 참석 .....	63
< 그림 48 > 북아메리카 방문 .....	63
< 그림 49 > A Government Of Alberta Reception 참석 .....	63
< 그림 50 > 케이트 미들턴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64
< 그림 51 > 케이트 미들턴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65
< 그림 52 > 미국 대통령 방문 .....	67
< 그림 53 > 싱가포르 방문1 .....	67
< 그림 54 > 싱가포르 방문2 .....	67
< 그림 55 > 케이트 미들턴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68

< 그림 56 > 케이트 미들턴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69
< 그림 57 > War Horse UK Film Premiere 참석 .....	71
< 그림 58 > 크리스마스 예배식 참석 .....	71
< 그림 59 > Children's Hospital 방문 .....	71
< 그림 60 > Naomi House 방문 .....	71
< 그림 61 > 케이트 미들턴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72
< 그림 62 > 케이트 미들턴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73
< 그림 63 > 허니문 여행 .....	75
< 그림 64 > Sam Waley-Cohen 결혼식 참석 .....	75
< 그림 65 > 캐나다 방문 공식 투어 .....	75
< 그림 66 > 출산 후 퇴원 .....	75
< 그림 67 > 케이트 미들턴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76
< 그림 68 > 케이트 미들턴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77
< 그림 69 > Annual Military Parade 참석 .....	82
< 그림 70 > Armistice Day Ceremony 참석 .....	82
< 그림 71 > Bastille Day 행사 참석 .....	82
< 그림 72 > French Heritage Day 참석 .....	82
< 그림 73 > 카를라 브루니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83
< 그림 74 > 카를라 브루니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84
< 그림 75 > 영국 방문2 .....	86
< 그림 76 > 영국 방문3 .....	86
< 그림 77 > 스페인 방문 1 .....	86
< 그림 78 > 스페인 방문 2 .....	86
< 그림 79 > 카를라 브루니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87
< 그림 80 > 카를라 브루니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88
< 그림 81 >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 .....	90
< 그림 82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알현 .....	90
< 그림 83 > 미국 대통령 방문 .....	90
< 그림 84 > 2009 NATO회담 미국 대통령 방문 .....	90

< 그림 85 >	카를라 브루니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91
< 그림 86 >	카를라 브루니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92
< 그림 87 >	2008년 노벨평화상 국제 회담 참석	94
< 그림 88 >	브라질 패션쇼 참석	94
< 그림 89 >	에이즈를 위한 패션 만찬 참석	94
< 그림 90 >	국제 에이즈기금마련 행사 참석	94
< 그림 91 >	카를라 브루니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95
< 그림 92 >	카를라 브루니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96
< 그림 93 >	2008년 앨범 발표	98
< 그림 94 >	미국 방문 시 거리에서의 모습	98
< 그림 95 >	Guggenheim Museum 방문	98
< 그림 96 >	엘리제 궁에서의 모습	98
< 그림 97 >	카를라 브루니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99
< 그림 98 >	카를라 브루니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100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의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 정치인의 패션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대중 매체를 통해 셀러브리티들이 급부상하면서 대중들은 이들의 패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은 정체성과 철학을 상징하며,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라는 의미의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란 신조어까지 생겨나 패션은 퍼스트레이디에게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활약하는 시대가 되었다<sup>1)</sup>. 퍼스트레이디 패션은 당대의 패션 아이콘으로써 국가 경제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자신의 개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퍼스트레이디의 스타일에 투영된 패션 이미지는 대중에게 문화적 의미와 가치관을 전달하여 개인의 취향과 친밀감, 동일시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기호로써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며<sup>2)</sup>, 훌륭한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의 특별 조언자이자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정부를 이끄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퍼스트레이디들이 사용하는 ‘패션 폴리틱스’에서 컬러는 가장 쉽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디자인 전략 중 하나이다.

컬러는 패션 이미지를 이루는 디자인의 기본 요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개인의 기호, 개성, 심리상태를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달하고자

---

1) 상윤진(2012). 로열 계층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p.36

2) 김미경(2012).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패션폴리틱스 현상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6(5). p.89

하는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제공하며, 컬러를 계획하는데 있어 추구하는 이미지와 부합할 때 성공적인 이미지의 전달이 가능해진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는 퍼스트레이디들의 패션에서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이자, 감각언어인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영국의 왕세자비의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학문적으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으며, 퍼스트레이디들의 역할과 패션 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과정을 국가행사,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으로 나누어 규명하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라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논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퍼스트레이디의 의상과 관련된 논문은 권현아(2003)<sup>4)</sup>의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김유정(2010)<sup>5)</sup>의 한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른 패션 이미지, 상운진(2012)<sup>6)</sup>의 로열 계층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임은숙(2013)<sup>7)</sup>의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 연구이고 컬러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은 권형신(2003)<sup>8)</sup>의 색채를 활용한 패션 이미지메이킹 연구, 심은아(2003)<sup>9)</sup>의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

3) 이희재(2006).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2000년에서 2005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pp.21-22

4) 권현아(2003).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대통령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5) 김유정(2010). 한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른 패션 이미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6) 상운진(2012). 전계서.

7) 임은숙(2013).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색채전공.

8) 권형신(2003). 색채를 활용한 패션 이미지메이킹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 전공.

9) 심은아(200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디

특성, 이윤주(1999)<sup>10)</sup>의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이희재(2006)<sup>11)</sup>의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을 분석하거나, 여성이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컬러이미지를 분석하여 세 나라의 퍼스트레이디의 의상 컬러에 따른 이미지 표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에 바탕이 될 수 있는 퍼스트레이디들의 출생, 성장과정, 성격, 역할, 수상내역 등 퍼스트레이디의 기본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패션 이미지의 특성, 컬러 이미지에 대해 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셋째, 미국,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 카를라 브루니(Carla Bruni),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을 대상으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른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고, 각 상황에서의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 표현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이미지로서의 컬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에서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컬러 이미지를 통해 컬러정보를 구축하고 여성 정치인 및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이미지 표현에 유용한 패션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퍼스트레이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권위 있는 기관인 경제전문

---

자인대학원 의상 섬유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10) 이윤주(1999).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11) 이희재(2006).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2000년에서 2005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 『포브스(Forbes)』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00인, 『타임즈(Times)』 선정 최고의 패션, 『베니티페어(Vanityfair)』 선정 베스트 드레서, 『피플지(People)』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가장 많이 선정된 3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메스컴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으며 패션으로도 주목을 받아 영향력이 있다고 사료되어 연구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해외인터넷사이트 ‘www.gettyimages.com’의 자료를 주로 하여 국내외 기사 및 블로그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의 기준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기간에 한했다. 미셸 오바마는 2008년 11월에서 2013년 11월 현재까지, 케이트 미들턴은 윌리엄 왕자와 약혼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카를라 브루니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5월로 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대통령제가 아닌 왕실 군주제로서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Alexandra Mary Windsor, Elizabeth II, 1926~ ) 여왕 아래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왕자(William Arthur Philip Louis Mountbatten Windsor, 1982~ )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Catherine Elizabeth Middleton, Kate Middleton, 1982~ )이 국가를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맡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작부인이자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을 퍼스트레이디라 지칭하기로 규정한다.

연구 방법은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인물별 패션에 대한 컬러 이미지의 특징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그 중 전신이 모두 나온 사진과 상의만 나왔지만 하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사진을 선별하였으며, 사진 화질에 따라 느껴지는 색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진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색의 분석 기준은 Munsell Color System을 기준으로 색을 판별하였으며, ‘www.iriscolor.com’ I.R.I.의 색채분석체계인 ‘색채 & 색조 120체계’, ‘단색 이미지 스케일’을 바탕으로 색상을 분석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퍼스트레이디(First Lady)

퍼스트레이디란 ‘대통령 및 주지사의 부인’, ‘각국의 수상 부인’, ‘예술·직업 등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적 입장의 여성’의 사전적 용어로<sup>12)</sup>,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이나 수상 등의 국가 최고 실권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서, 부통령제 국가에서는 부통령의 아내를 ‘세컨드 레이디(Second Lady)’라고 하기도 한다<sup>13)</sup>.

퍼스트레이디는 미국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1877년 미국의 제19대 러디퍼트 헤이스(Rutherford Birchard Hayes, 1822~1893) 대통령 취임 때 여성 리포터가 그 부인을 퍼스트레이디라고 부른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1886년에 제22대의 스테픈 그로버 클리블랜드(Stephen Grover Cleveland, 1879~1903) 대통령이 취임 후 친구의 딸 프랜시스 폴섬(Frances Folsom)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때에 폴섬을 퍼스트레이디라고 부르면서 이 이름이 정착되었다<sup>14)</sup>.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인하여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정책적 활동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고유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등 전문직 여성으로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sup>15)</sup>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에서 현대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책의 결

12) 김유정(2010). 전계서. pp.5-6

13) [http://ko.wikipedia.org/wiki/%ED%8D%BC%EC%8A%A4%ED%8A%B8\\_%EB%A0%88%EC%9D%B4%EB%94%94](http://ko.wikipedia.org/wiki/%ED%8D%BC%EC%8A%A4%ED%8A%B8_%EB%A0%88%EC%9D%B4%EB%94%94)(검색일자:2013.7.18.)

14) 정선주(2012). 퍼스트레이디 록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미셸오바마, 카를라 브루니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복디자인문화학회, 18(3). p.479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538&cid=200000000&categoryId=200000132>(검색일자:2013.7.18.)

정자가 되기도 한다. 퍼스트레이디의 행동과 역할은 여성들의 지위와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며,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은 그 시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으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1) 미셸 오바마 (Michelle Lavaughn Robinson Obama, 1964. 1. 17 ~ )

시카고 남부지역 빈곤한 흑인 밀집지역에서 태어난 미셸 오바마는 두 딸의 어머니이자 미국의 흑인 여성 법조인이자 사회 운동가이며, 미국 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부인이다. 미셸 오바마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1988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힐러리 클린턴과 로라 부시에 이어 박사 학위를 받은 세 번째 퍼스트레이디이다. 대학원 졸업 후, 시카고 로펌회사 시들리 & 오스틴(Sidley & Austin)에 취직하여 지적 재산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시카고 대학 의료센터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sup>16)</sup>. 1992년 버락 오바마와 결혼하였고,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미셸 오바마는 퍼스트레이디가 되었다.

미셸 오바마는 변화와 희망을 역설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로 지적인 외모와 화려한 경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변화된 패션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데, 때와 장소, 상황(T.P.O. 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의상을 골라 입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데이비드 예르마크(David Yermack) 뉴욕대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뒤 1년간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가 일으킨 패션 경제 효과가 27억 달러(약 3조 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며,<sup>17)</sup> 뉴욕 패션계에 그가 만들어준 경제 가치는 30억 달

16) 수잔 스위머, 최유나 역(2009). 미셸 오바마 스타일. 서울 : 장서가. pp.81-85

17) <http://news.donga.com/3/all/20130907/57512056/1> (검색일자:2013.9.26.)

러가 넘는다.<sup>18)</sup>

이처럼 미셸 오바마는 그녀가 입은 브랜드들의 가치 상승을 통해 패션 업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오바마는 단순히 화려함으로 치장한 헐리우드 스타들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현대 여성상을 구현하며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실용적인 기능성과 우아함을 잃지 않은 미국적인 하이패션을 상징하는 전형이 되었으며 대중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함께 현대의 패션 유행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침체되어 있는 미국 패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sup>19)</sup>

또한 미셸 오바마는 여러 평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압도하는 호응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갤럽(gallup)』이 2009년 말에 발표한 ‘올해의 정치적 승리자’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미셸 오바마가 승리자’라고 답해 미셸은 미 정치권의 최고 ‘승리자’로 평가되었다. CNN방송과 오피니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미셸 오바마는 68%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을 제치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sup>20)</sup>.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여성리더 100인에 2009년 40위, 2010년 1위, 2011년 8위, 2012년 7위, 2013년 4위에 오르기도 하였다<sup>21)</sup>. 또한 2009년 『베티니페어(Vatinyfair)』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타임즈(Times)』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아이콘 100인, 2012년 최고의 패션 3위에 올랐으며, 2013년 『피플지(People)』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49살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

1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9303&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9303&cloc=olink|article|default) (검색일자:2013.09.26.)

19) 상윤진(2012). 전계서. pp.39-40

20)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354647>(검색일자:2013.7.18.)

21) <http://www.forbes.com>(검색일자:2013.11.20.)

2) 케이트 미들턴 (Catherine, Duchess of Cambridge, 1982. 1. 9. ~ )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캐서린은 영국 왕세손 케임브리지 공작 윌리엄의 부인이다. 본명은 캐서린 엘리자베스 미들턴(Catherine Elizabeth Middleton)이지만 보통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영국 리딩에서 노동자 출신의 중산층 계급 집안에서 태어난 케이트 미들턴은<sup>23)</sup> 2001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재학 중 윌리엄 왕자를 처음 만나 2010년 11월 16일에 약혼하였고 2011년 4월 29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sup>24)</sup>. 2013년 7월 22일에는 미들턴이 윌리엄 왕자의 첫 아이, 왕위계승서열 3위인 왕자를 출산했다.<sup>25)</sup>

케이트 미들턴은 영국 패션계에 큰 관심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케이트 미들턴 효과"라고 칭하기도 하며, 2012년 『타임즈(Time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sup>26)</sup> 또한, 미국의 패션 라이프 전문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가 뽑은 베스트 드레서에 2010년부터 4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sup>27)</sup> 또한, 2012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가장 매력적인 여성 12명에 오르기도 하였으며<sup>28)</sup>, 2011년 『타임즈(Times)』가 선정한 최고의 패션 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

22) [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검색일자:2013.07.25.)

23) Katie Nicholl(2013). Kate: The Future Queen. London : Weinstein Books. pp.2-20

24) Katie Nicholl(2013). 상계서. pp.203-227

25) [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검색일자:2013.07.25.)

26) [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http://ko.wikipedia.org/wiki/%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_%EA%B3%B5%EC%9E%91_%EB%B6%80%EC%9D%B8_%EC%BA%90%EC%84%9C%EB%A6%B0)(검색일자:2013.07.25.)

27) <http://blog.hawkinskorea.com/804>(검색일자:2013.09.26.)

28)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C%BC%80%EC%9D%B4%ED%8A%B8%20%EB%AF%B8%EB%93%A4%ED%84%B4&os=182954](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C%BC%80%EC%9D%B4%ED%8A%B8%20%EB%AF%B8%EB%93%A4%ED%84%B4&os=182954)(검색일자:2013.11.9.)

케이트 미들턴은 영국 디자이너의 옷을 즐겨 입으면서 패션으로 산업을 살리고 정치를 한다. 영국 언론은 미들턴이 앞으로 영국 패션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들턴의 남다른 패션 감각은 패션 리더로 불렸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차별화될 만큼 돋보인다. T.P.O.에 따라 옷을 잘 골라 입으며 대중적인 브랜드를 잘 배합해, 수수하지만 품격 높은 패션을 선보인다<sup>29)</sup>.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은 귀족과 왕실로 대표되는 영국의 상류층 문화가 어우러져 침체된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케이트 효과(Kate Effect)’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인터넷 신문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왕실에 대한 대중의 선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sup>30)</sup>.

### 3) 카를라 브루니 (Carla Bruni Sarkozy, 1967. 12. 23. ~ )

카를라 브루니는 모델 출신의 음악가이자, 지성과 재능, 팜므파탈의 매력을 겸비한 프랑스의 23대 대통령인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1955년 1월 28일~)의 부인이다.

이탈리아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카를라 브루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웅장하고 호화로운 예술품과 귀중품이 가득한 성에서 부유한 토리노의 사업가이자 음악가인 부모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sup>31)</sup>.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세상을 접하며 자라나 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심미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sup>32)</sup>.

29)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112&aid=0002390853>  
(검색일자:2013.9.10.)

30) 상윤진(2012). 전계서. pp.37-38

31) 심우찬(2010). 프랑스여자처럼. 서울 : 시공사. pp.152-163

32) 키아라 제미올리, 강현주 역(2010). 완벽한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 서울 : 디자인이

모델로 데뷔한 후, 처음에는 브랜드 ‘게스(Guess)’의 광고모델로 시작했고,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지방시(Givenchy)’,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샤넬(Channel)’, ‘베르사체(Atelier Versace)’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sup>33</sup>). 모델 활동을 은퇴한 후, 프랑스의 유명 뮤지션인 줄리앙 클레르(Julien Clerc)의 제안에 줄리앙의 곡에 작사를 시작으로 음반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수로 전업하게 된다<sup>34</sup>).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 재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1945 ~ .가수), 믹 재거(Mick Jagger, 1943 ~. 가수, 영화배우)와도 염문을 뿌렸고, 누드 화보를 찍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sup>35</sup>)

카를라 브루니는 2007년 대통령 주최 연말 파티에 초대되어 제 23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을 만나,<sup>36</sup>) 2008년 2월 2일 카를라 브루니와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엘리제 궁(Palais de l'Elysee)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카를라 브루니는 2010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5위를 차지하였으며, 『베니티 페어(Vanity Fair)』가 선정한 가장 옷 잘 입는 정치인 아내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sup>37</sup>). 또한, 2011년 『타임즈(Times)』가 선정한 최고의 패션 8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카를라 브루니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세심한 내조로 대통령의 실추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여러 부분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었으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과 우아한 말투까지 더해져 명예로운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sup>38</sup>). 카를라 브루니는 중요한 국가 행사 때마다 크리스찬 디올

---

음. pp.72-74

33) 권희경(2011). 프렌치시크 파리지엔 스타일. 서울 : 북웨이. p.50

34) 키아라 제미올리, 강현주 역(2010). 전게서. p.201

35) 김민주(2008). 2009 트렌드 키워드. 서울 : 미래의 창. p.268

36) 키아라 제미올리, 강현주 역(2010). 전게서. pp.201-202

37)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03/19/201203190500028/201203190500028\\_1.html](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03/19/201203190500028/201203190500028_1.html)(검색일자:2013.11.20.)

38) 권희경(2011). 전게서. p.55

(Christian Dior), 에르메스(Hermes), 쇼메(Chaumet) 주얼리 같은 프랑스 자  
국 브랜드 제품을 들고 나오며 간접 홍보하였다. 영국 타임지는 브루니가 영국  
공식 방문 때 입은 의상은 크리스찬 디올로 100만 파운드(약 20억원)의 광고 효  
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sup>39)</sup>.

---

39) 상윤진(2012). 전게서. pp.41-42

## 2. 패션 이미지(Fashion Image)

패션 이미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의식인 패션 마인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네 개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클래식과 아방가르드 이미지로 나누어지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나타낼 때 페미닌과 매니쉬로 분류된다. 또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인 활동성과 관련된 이미지는 엘레강스와 액티브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성과 문화성의 축으로 구분되는 패션 이미지는 모던과 에스닉으로 나눈다.

### 1) 클래식 (Classic)

클래식은 ‘고전적’, ‘싫증이 나지 않는’, ‘기본적’, ‘표준적’의 뜻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sup>40)</sup>이면서 유행과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패션 스타일이다. 또한 중후하고 격조 있으며 세련되고 지적이며 품위 있는 이미지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디자인은 몸에 적당히 맞는 스타일로써 클래식 아이템으로는 샤넬 수트, 트렌치 코트, 스웨터, 카디건 등이 대표적이며, 색상은 브라운, 와인, 머스타드, 올리브그린 등의 중후한 느낌을 주는 딥(deep)이나 다크(dark) 톤의 감색이나 검은색을 주로 사용한다<sup>41)</sup>. 소재는 캐시미어, 트위드, 벨벳, 개버딘, 코듀로이, 울 등을 많이 사용하고 문양은 무늬가 없는 직물이나 타탄체크, 헤링본, 하운드투스나 물방울, 스트라이프, 체크 등 기하학적 무늬<sup>42)</sup>를 많이 사용한다.

40) 이정주, 김기연(2012). 전개서. pp.162-163

41) 김희숙 외(2009). 스타일메이킹. 경기 : 교문사. p.100

42) 박숙현(2007). 패션 이미지 메이킹. 서울 : 예학사. pp.46-47

## 2) 아방가르드 (avant-garde)

아방가르드는 전위적인 예술의 스타일을 통칭하는 말로, 개성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착용되는 스타일로, 유행의 선두에 서며 기존의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대중성, 일반성을 무시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이고 기묘한 디자인의 패션 이미지이다<sup>43)</sup>.

대표적인 디자인은 의복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복의 구성적 형태를 파괴, 제거 또는 확대 등이 있다. 재미있고 기발한 형태와 패턴도 이용되며 패치워크나 좌우 비대칭, 안팎 뒤집기, 솔기 풀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sup>44)</sup> 색상은 블랙, 화이트, 골드, 실버, 형광색, 원색 등 대체로 화려한 것을 사용하며, 소재는 정해진 규칙 없다. 간결하고 베이직한 옷차림의 경우에도 기하학적인 비대칭 디자인의 가방, 뒷 굽의 모양이 독특한 구두, 독특한 디자인의 벨트를 비롯한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면 아방가르드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다<sup>45)</sup>.

## 3) 매니쉬 (Mannish)

매니쉬란 남성복 디자인을 여성복에 적용하여 남성다운 감각으로 표현한 스타일로, ‘여성적인’이란 뜻의 페미닌(feminine)과 대비되는 말이다. 여성이 남성적 느낌의 의복을 이용해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외모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시도하면서 나타난 이미지로<sup>46)</sup>, 격조와 침착함, 안정감이 있고 차분한 느낌의 남성적인 딱딱함과 위엄이 있는 이미지이다.

대표적인 디자인은 테일러드 수트,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페도라, 남성적 구두, 서스펜더(어깨벨트), 행커치프(handkerchief) 등이 있으며, 색상은 블랙, 그

---

43) 김희숙 외(2009). 전계서. p.114

44) 김희숙 외(2009). 상계서. p.114

45)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164

46) 박숙현(2007). 전계서. p.45

레이, 다크 네이비, 다크 브라운, 올리브 그린, 베이지 등 다크 톤이나 딥 톤을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소재는 울, 개버딘, 트위드, 코듀로이 등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한 재질을 많이 사용한다. 문양은 줄무늬, 글렌체크, 스트라이프, 헤링본 등 기하학적이고 남성적 패턴이 주로 사용된다.

#### 4) 페미닌 (Feminine)

페미닌은 ‘여성스러운’, ‘상냥한’, ‘온화한’, ‘연약한’, ‘부드러운’,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로, 서정적이고 섬세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디자인은 인체의 곡선미를 잘 살려서 둥근 어깨선과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표현한 정적인 이미지<sup>47)</sup>이며, 색상은 주로 부드러운 페일(pale) 톤의 밝고 따뜻하며 은은한 아이보리, 연핑크, 하늘색 등의 파스텔 색상을 주로 사용한다. 레이스, 프릴, 플라운스, 리본 등을 이용한 수공예적 트리밍이 많이 활용되며, 소재는 시폰, 크레이프, 저지, 오간자, 실크, 벨벳, 양고라 등이 있으며, 무늬는 꽃무늬, 잔잔하고 곡선적인 무늬를 이용하여 페미닌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 5) 엘레강스(Elegant)

엘레강스는 ‘기품’, ‘품위’, ‘고상’, ‘우아’의 뜻으로, 단정하며 귀부인과 같은 느낌의 성숙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이다. 주로 심플하고 미니멀한 감각의 고급스러운 패션 이미지로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이나 꾸밈이 없어도 품위가 있고 세련된 분위기의 아름다운 여성미를 표현할 수 있다.

챙이 큰 모자, 토드백, 진주목걸이, 스카프를 활용한<sup>48)</sup> 클래식한 감각의 수트

---

47) 김혜경(2007). 전계서. pp.220-222

48) 박숙현(2007). 전계서. p.47

차림이 엘레강스 이미지의 전형이며, 여성의 인체 곡선미를 살린 디오르(Dior) 룩이나 드레스도 여기에 속한다<sup>49)</sup>. 소재는 실크나 울, 캐시미어, 죠젯, 새틴, 벨벳 등의 무늬가 없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며, 색상은 빨강, 자주, 보라계열을 중심으로 파스텔톤에 회색빛이 섞여 그레이쉬한 톤, 다크 톤, 페일 톤이나 라이트 톤을 사용<sup>50)</sup>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 6) 액티브 (Active)

액티브는 ‘활동적인’, ‘적극적인’, ‘왕성한’의 뜻으로, 젊음과 활동성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건강미, 해방감, 생동감, 경쾌한 점이 특징이며, 실용성, 기능성과 편안함을 추구한다. 디자인, 소재, 색상 등에서 매우 자유롭고, 매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현대 미술 사조의 팝아트도 젊은 감각의 표현에 적합하여 많이 사용되며<sup>51)</sup>, 개방색이며 자유분방한 이미지이다.

대표적 디자인은 T셔츠, 점퍼, 바지, 조끼, 스포츠재킷, 진, 니트, 스니커즈 등 격식 없는 편안한 스타일로, 색상은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브라이트 톤의 밝고 경쾌한 색상이나, 베이지, 카키, 회색 등의 차분한 이미지의 색상도 현대적 감각의 캐주얼웨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52)</sup>. 소재는 주로 면, 데니, 코듀로이, 저지, 신축소재, 구김방지소재와 가공 처리된 합성 섬유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무늬는 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기하학적 무늬나 추상적 무늬를 위주로 하여 화려하고 발랄한 무늬가 선호된다.

---

49) 김희숙 외(2009). 전계서. p.104

50)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170

51)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p.172-173

52) 박숙현(2007). 전계서. p.52

## 7) 모던 (Modern)

모던은 ‘현대적’, ‘도시적’, ‘합리적’, ‘이지적’, ‘기하학적’인 시크한 분위기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로 날카롭고 치밀하며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이질적인 것과 과감한 조화를 통한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며<sup>53)</sup>, 엘리트적 감각의 단순한 이미지로, 도시적 세련미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디자인은 직선적이고 딱딱한 선으로 이루어진 실루엣으로 이루어지며, 색상은 단색의 청색계통이나 기계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색 및 그레이 톤의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며 블랙과 화이트의 고명도 대비효과를 가진다<sup>54)</sup>. 소재는 실크, 캐시미어, 울 등을 사용하며, 무늬는 단순하고 명쾌한 직선적인 패턴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많이 사용하여 세련되고 단순한 느낌을 준다.

## 8) 에스닉 (Ethnic)

에스닉은 ‘민속의’, ‘이국적’,이라는 뜻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민속복에서 영감을 얻은 이미지로, 소박하고 전원적이며 토속적인 민속적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이미지이다.

대표적인 디자인은 각국에 전해오는 민속의상이나 고유한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힌트를 얻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스타일<sup>55)</sup>로, 색상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소재는 대부분 면, 마, 모 등의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각 나라의 민족성을 살린 특이한 문양이나 자수, 자연무늬, 패치워크 등이 많다. 액세서리는 자연 재료인 나무, 상아, 호박, 동물의 뼈, 깃털, 가죽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민속 고유 무늬의 장신구가 주를 이룬다<sup>56)</sup>.

---

53)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p.176-177

54) 김희숙 외(2009). 전계서.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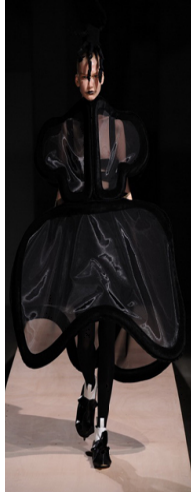
55) 박숙현(2007). 전계서. pp.54-55

56)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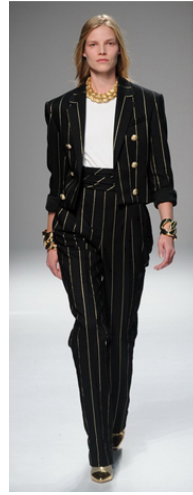
<그림 1>

클래식  
(출처 :  
2013 Burberry  
Prorsum  
F/W Collection)



<그림 2>

아방가르드  
(출처 :  
2014 Comme  
des Garçons  
S/S Collection)



<그림 3>

매니쉬  
(출처 :  
2014 Balmain  
S/S Collection)



<그림 4>

페미닌  
(출처 :  
2014 Burberry  
Prorsum  
S/S Collection)



<그림 5>

엘레강스  
(출처 :  
2014 Bottega  
Veneta  
S/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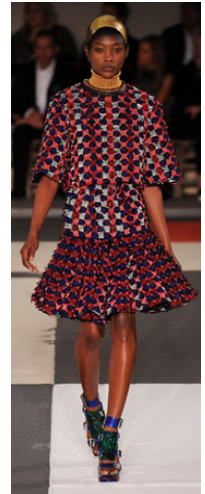
<그림 6>

액티브  
(출처 :  
2014 DKNY  
S/S Collection)



<그림 7>

모던  
(출처 :  
2013 Louis Vuitton  
S/S Collection)



<그림 8>

에스닉  
(출처 :  
2014 Alexander  
McQueen  
S/S Collection)

### 3. 컬러 이미지(Color Image)

색은 빛이 눈에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시각중추에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감각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3가지 감각속성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에 있어서 컬러는 형태와 함께 디자인의 시각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sup>57)</sup>, 특히 패션에서의 컬러는 착용자의 지위, 환경, 품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없는 표현 언어이며<sup>58)</sup>, 인상 형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상황과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라 컬러가 의미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달라지며 심리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컬러라도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도 있다.

색상(Hue, H)은 물체의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반사되는 색 파장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데, 흰색, 회색,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색의 모든 총칭이다.

명도(Value, V)란 물체 표면이 빛을 반사하는 양에 따른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며 유채색과 무채색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단계인 검정을 명도 0에서 가장 밝은 흰색을 명도 10으로 하여 11단계로 나눈다.

채도(Chroma, C)란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진한색, 연한색, 흐린색, 맑은색 등으로 표현한다. 채도는 14단계로 구분하며 채도가 높을수록 화려하고, 낮을수록 색은 칙칙해진다.

---

57) 윤혜림(2008). 색채관리와 색채디자인. 서울 : 도서출판 국제. p.146

58) 이정주, 김기연(2012). 패션과 이미지메이킹. 서울 : 신광출판사. p.104

## 1) 컬러 이미지(Color Image)

### (1) 무채색(Achromatic Color)

흰색과 여러 단계의 회색 및 검정색에 속하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색광각의 색을 통틀어 무채색이라고 한다. 즉 무채색은 가장 밝은 흰색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검정색 사이에 들어가는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암의 차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다<sup>59)</sup>. 따라서 무채색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명도는 있지만 색상, 채도는 없는 것이다.

#### ① 흰색 (White)

흰색은 순결, 순수, 여성스러움, 신성, 청결, 청초, 결백을 상징하며, 주위의 색에 따라 차갑게 보이기도 하며 순수한 친근감을 갖게도 한다. 흰색 계통과 같이 있을 때에는 이지적이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난색과 같이 있을 때에는 활기 있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sup>60)</sup>. 흰색은 단순함과 세련미의 상징으로 디자인과 테크닉을 극한까지 생략한 미니멀리즘 표현에도 적합한 모던한 색이다.<sup>61)</sup>

#### ② 회색 (Gray)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 상태이므로 두 색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밝은 회색은 흰색에 가까운 성격을, 어두운 회색은 검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흰색의 날카로움이나 중압감의 검정색에 비하여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62)</sup>

회색은 보수적인, 활동적인, 점잖은, 절제된, 우울하고 침울한 반면 침착하고 차분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며, 세련미와 고급스러움,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색

---

59) 심은아(2003). 전계서. pp.17-18

60)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61

61) 박숙현(2002). 전계서. p.77

62)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61

이기도 해 회색 옷은 경제적, 사회적 기품을 발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의 메시지를 풍긴다<sup>63</sup>).

### ③ 검정색 (Black)

검정색은 모든 색채 중에서 가장 명도가 낮아 무겁고 엄숙하며 심원한 깊이를 느끼게 하며, 반면에 압박감과 공포, 불길, 침묵, 죽음 등을 연상시킨다.<sup>64</sup> 검정색은 고급스러움, 세련된, 강한, 깊고 차분함, 엄숙함, 금욕, 절제, 위엄, 고독함, 음산함, 딱딱함, 늡음, 어둠, 좌절과 반항의 이미지가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 오면서 검정의 이미지는 신비감과 권위, 에로틱하고 섹시한 매력, 극도로 점잖은 분위기와 우아함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미스터리와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표현에도 효과적인 색이다<sup>65</sup>. 검정색은 강한 유채색과의 조합에 따라 짙은 색으로 느끼게 하고 신체의 볼륨을 살려주며 여성의 곡선미에 명암을 준다.<sup>66</sup>

## (2) 유채색(Chromatic Color)

색채를 느끼는 유채광각을 말하며, 이것은 색의 개념에는 흰색,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을 포함하지만,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한다.<sup>67</sup>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와 이러한 색들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유채색으로 분류를 하는데,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sup>68</sup>

---

63) 박숙현(2002). 전개서. pp.77-78

64) 김미현 외(2003). 전개서. p.61

65) 박숙현(2002). 전개서. p.78

66) 김유순 외(2004). COLOR & PERSONAL COLOR 색채와 색채진단. 서울 : 예림. P.79

67) 유태순, 조기여 외(2000). 색채학-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성화. p.19

68) 김희숙 외(2009). 전개서. p.25

### ① 빨강색 (Red)

빨강색은 태양, 불, 피 등을 연상시키며, 생명, 활동, 용기, 대담, 건강, 정열, 원기, 희망, 위험 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 빨강색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색이며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색으로 명도를 높여 핑크(pink)가 되면 더욱 젊고 행복한 느낌을 주므로 영아복이나 소녀복 등에 잘 어울린다.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는 순색을 많이 사용하고 봄에는 고명도 · 저채도의 것을 많이 사용한다.<sup>69)</sup> 빨강색은 주로 활동성과 기능성이 요구되는 리조트 웨어에 많이 사용되지만, 포멀 웨어에 사용하면 다른 색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sup>70)</sup>

### ② 주황색 (Orange)

주황색은 태양과 카니발의 색인 동시에 가정과 사랑의 색으로, 인접해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주황색의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up>71)</sup> 주황색은 빨강색보다도 더욱 자극적이고 정열적이며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으로 풍요, 우정, 질투, 환희, 대담, 활발, 원기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목성이 높다<sup>72)</sup>. 주황색은 경쾌한 이미지의 리조트 감각의 캐주얼 웨어나 개방적이며 도시의 세련미를 표현하는 포멀 웨어의 디자인 발상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sup>73)</sup>

### ③ 노랑색 (yellow)

노랑색은 태양빛의 상징으로 색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며 밝은, 젊은, 화려한, 빛남과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즐겁고 친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주황색이나 빨강색과 비교한다면 경박하고 냉담한 색으로 보일 수

69)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58

70) 이경희 외(2001). 패션 디자인 발상. 서울 : 교문사. p.71

71) 이경손 외(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 교문사. p.138

72) 김유순 외(2004). 전계서. P.73

73) 이경희 외(2001). 전계서. p.72

있다. 가벼움, 호기심, 밝음, 행복, 지혜의 이미지가 있다. 반면 주의, 경고, 경솔, 불안, 신경질, 불안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sup>74)</sup>, 불안정하고 취급하기 힘든 색이다. 그러나 채도와 명도를 낮추면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는 좋은 의복색을 구할 수 있다.<sup>75)</sup> 청순하고 명랑하며 화려한 색으로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이다.<sup>76)</sup>

#### ④ 연두색 (Green Yellow)

연두색은 신선하고 파릇한 새싹으로 생명의 소생을 의미한다. 초록색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며, 명도와 채도를 변화시키면 유아복에서 노인복까지 사용될 수 있는 색이다. 배색에 있어서 흰색, 검정색이 배색이 될 경우 초록색이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보여 지며, 또한 같은 계통의 색조인 베이지색, 노랑색, 크림색 등과도 잘 어울린다.<sup>77)</sup> 명랑하고, 쾌활하고 전진적인 이미지가 있다.

#### ⑤ 초록색 (Green)

초록색은 자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으로 모든 색 중에서 가장 휴식을 주는 자연의 색이며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건강, 에너지, 안식, 신선, 젊음, 희망, 평화, 치료를 상징하며 생명감의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초록색이 생명의 부활, 재생을 의미하고 있다<sup>78)</sup>. 의복에서 선명한 초록색은 잘 사용되지 않는 독창성과 희소성이 있는 색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촌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명도나 채도를 변화시키면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초록색은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침착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편안한 스타일의 캐주얼 웨어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sup>79)</sup>

---

74) 김유순 외(2004). 전계서. P.74

75)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59

76) 이경희 외(2001). 전계서. p.73

77)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59

78) 김유순 외(2004). 전계서. P.75

79) 이경희 외(2001). 전계서. p.74

#### ⑥ 청록색 (Blue Green)

청록색은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색으로 자연의 색이며 시원하고 맑은 느낌을 준다. 평화, 휴식, 맑음, 침착함, 낙천적, 풍요로운 느낌을 준다. 청록색은 특색 있고 세련된 느낌을 주나,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 아이보리 등 톤 다운된 색상과 배색하면 효과적인 배색을 할 수 있다. 여름 용 의복이나 캐주얼 웨어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 ⑦ 파랑색 (Blue)

파랑색은 청춘, 청년의 젊다는 의미로 청초, 성실, 희망을 상징하며 끝없이 넓은 하늘과 바다의 푸름을 연상케 한다. 파랑색은 지성, 이성, 냉정, 평화, 숭고함, 고귀함, 차가움, 자제, 자립심, 믿음, 침착함으로 상징되며 신뢰와 비전이 가장 높은 색으로 인식되고 있다<sup>80)</sup>. 또한, 우울, 고독, 슬픔, 실망, 소극적, 내성적인 이미지가 있다.<sup>81)</sup> 밝은 파랑색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므로 여름 의복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랑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으로써, 선명한 블루는 리조트 웨어에 사용하여 젊음과 시원함을 표현할 수 있다.<sup>82)</sup>

#### ⑧ 남색 (Purple Blue)

어두운 파랑색인 남색은 힘과 권력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침착하고 안정감을 주며, 젊은 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잘 어울린다.<sup>83)</sup> 또한 흰색, 노란색과 배색된 네이비는 스포티, 산뜻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남색은 단정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표현하는 디자인 발상에 사용할 수 있다.<sup>84)</sup> 또한 남색은 신비한, 극적인, 모던, 초현실적이며 미래적, 강렬함, 장식적 등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다<sup>85)</sup>.

80) 이경손 외(2011). 전계서. p.141

81) 김유순 외(2004). 전계서. P.76

82) 이경희 외(2001). 전계서. p.75

83)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p.59-60

84) 이경희 외(2001). 전계서. p.75

### ⑨ 보라색 (Purple)

보라색은 장엄하고 호화로우며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또 우아하며 신비적인 감을 주기 때문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이미지의 의복색으로 생각되어 왔다.<sup>86)</sup> 보라색은 로맨틱, 엘레강스, 쉬크, 댄디를 나타내며<sup>87)</sup>, 농도에 따라 고귀함, 고독, 정서불안, 음지, 비애, 신비, 의지, 우아, 아름다움, 로맨틱함과 편안함 등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낸다.

보라색은 왕권과 정신적 권위의 상징으로도 번영과 부와도 연관된 색이다. 보라색은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에 더욱 풍부한 분위기를 살려 주고, 특히 드레시한 의복에 더욱 잘 어울린다. 배색으로는 흰색, 베이지색, 회색, 밝은 초록색 등이 무난하다<sup>88)</sup>.

### ⑩ 자주색(Red Purple)

자주색은 미묘한 관능성과 심오하고 영적인 힘을 표현한다. 자주색은 충성의 색으로 알려져 있어 대단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의 색깔로 권력과 부유함을 암시하고 그윽한 자주색은 세련된 마음과 정신을 암시한다. 대체로 자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영적인 느낌이 강하다.<sup>89)</sup>

<표 1>은 컬러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컬러를 바탕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

85) 박숙현(2002). 전계서. p.77

86)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60

87) 이희재(2006). 전계서. p.15

88) 김미현 외(2003). 전계서. p.60

89) 박숙현(2007). 전계서. p.63

<표 1> 컬러 이미지

	Color		연상이미지
무채색	흰색		순결, 순수, 은은, 여성스러움, 신성, 청결, 청초, 청순, 결백, 세련, 천국, 천사
	회색		보수적, 활동적, 점잖은, 절제, 우울, 침울, 침착, 차분, 세련, 고급스러움, 겸손
	검은색		고급스러움, 세련, 강한, 차분함, 엄숙함, 금욕, 절제, 위엄, 고독함, 음산함, 불길함, 딱딱함, 죽음, 늡음, 공포, 어둠, 좌절, 반항
유채색	빨강색		생명, 활동, 용기, 대담, 건강, 정열, 열정, 섹시, 원기, 희망, 위험
	주황색		풍요, 우정, 질투, 환희, 대담, 활발, 활력, 흥분, 경쾌, 원기, 유희
	노랑색		밝음, 젊음, 화려, 빛남과 따뜻함, 가벼움, 밝음, 행복, 지혜, 주의, 경고, 경솔, 불안, 신경질, 해방
	연두색		생명, 재생, 명량, 쾌활, 전진, 호기심, 희망, 미래
	초록색		건강, 에너지, 안식, 신선, 젊음, 희망, 평화, 치료, 생명, 재생
	청록색		평화, 숭고함, 고귀함, 청초, 자연, 이지적, 휴식, 맑음, 침착함, 낙천적, 풍요
	파랑색		성실, 희망, 젊음, 싱싱함, 지성, 이성, 냉정, 차가움, 자제, 자립심, 믿음, 침착, 우울, 고독, 슬픔, 실망, 소극적
	남색		세련, 권력, 침착, 안정감, 단정, 신비한, 극적인, 모던, 초현실적, 미래적, 강렬함, 장식적
	보라색		로맨틱, 엘레강스, 쉬크, 댄디, 고귀, 고독, 정서불안, 음지, 비애, 신비, 의지, 우아, 아름다움, 로맨틱함, 편안함, 권위
	자주색		로맨틱, 엘레강스, 우아, 아름다움, 관능성, 심오, 영적인 힘, 충성, 자부심, 권력, 부유, 세련, 창의적, 열정적

## 2) 톤 이미지(Tone Image)

톤(tone, 색조)은 색상이 달라도 공통된 이미지를 갖는 그룹의 색상들을 말하는데, 색의 3속성을 복합시켜 만든 것으로 색의 농담, 강약, 명암 등의 상태를 말한다<sup>90)</sup>. 톤은 심리적 색채계에 비하여 색을 보다 감각적이고 심리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며, 이미지를 반영하기 쉬우므로, 패션 예측색도 색조 분류법에 의하여 색채군을 제시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sup>91)</sup>.

### (1) 비비드 톤(Vivid)

원색의 화려한 컬러로 이루어지며 채도가 높아서 선명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대담한, 자유분방한, 선명한, 생생한, 강렬한, 자극적인, 발랄한, 활동적인 이미지를 준다.

### (2) 스트롱 톤(Strong)

원색의 색감에서 좀 더 강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화려하지만 색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액티브, 캐주얼, 스포티브 이미지 의상에 많이 활용되며, 힘찬, 동적인, 강한, 실용적인, 충실한 이미지를 준다.

### (3) 브라이트 톤(Bright)

순색에 흰색이 조금 섞은 컬러로 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색조로 신선해 보이는 톤이다.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로 젊은 감각의 캐주얼웨어로 활용되며, 밝은, 빛나는, 맑은, 경쾌한, 신선한, 화려한 이미지를 준다.

---

90) 이정주, 김기연(2012). 전계서. p.108

91) 이희재(2006). 전계서. p.15

#### (4) 페일 톤(Pale)

거의 흰색에 약간의 색감이 가미된 컬러로 톤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벼우며 우아하고 로맨틱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갖는다. 유아복,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며 부드러운, 연한, 은은한, 로맨틱한, 섬세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 (5) 베리페일 톤(Very Pale)

페일톤보다 더 흰색이 가미되어 거의 흰색처럼 보이는 컬러로 톤 중에서 가장 연한 색상으로 부드럽고 가벼우며 연약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파스텔감의 색상 조합으로 아주 부드러운, 연약한, 가벼운 이미지를 준다.

#### (6) 라이트 그레이시 톤(Light grayish)

흰색에 밝은 회색이 섞인 컬러로 모던하고 세련되며 우아하고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준다. 파스텔 색감으로 인해 여성스럽고 엘레강스한 컬러로 소박한, 정적인, 흐릿한, 간결한, 온화한, 단순한 이미지를 준다.

#### (7) 라이트 톤(Light)

브라이트보다 흰색을 더 많이 섞은 컬러로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페미닌하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컬러로 온화한, 부드러운, 따뜻한, 약한, 밝은, 평범한 이미지를 준다.

#### (8) 그레이시 톤(Grayish)

파스텔 톤에 회색 기미가 많이 포함된 컬러로 차분하고 침착한 느낌을 주며 도시적 세련미를 대표하는 현대적이며 지적인 톤이다. 순수한, 오래된, 탁한, 침착한, 칙칙한, 견실한 이미지를 준다.

(9) 덜 톤(Dull)

자연적이고 안정감 있으며 어스 컬러(earth color)라고도 한다. 색의 느낌이 감소된 톤이며 차분한, 고상한, 고풍스러운, 내추럴한, 둔한 이미지를 준다.

(10) 딥 톤(Deep)

비비드 톤에 검정색이 약간 섞은 컬러로 원색이 주는 생동감이 약간 감소되어 차분한 느낌을 준다. 클래식한, 원숙한, 묵직한 깊이 있는, 고상한, 진한 이미지를 준다.

(11) 다크 톤(Dark)

어둡고 무거워 보이는 명도가 아주 낮은 짙은 컬러로 클래식 이미지의 기본색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다. 안정된, 격조높은, 고전적인, 단단한, 남성적인, 원숙한, 과묵한, 권위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컬러로 주로 남성용품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9>의 'Hue & Tone 120 System'는 색상과 색조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Hue & Tone 120 System'는 사람들이 하나의 색을 볼 때 느끼는 인상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기준이다. 'Hue & Tone 120 System'는 10가지 색상과 11단계 톤으로 구성된 110개의 유채색과 명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10개의 무채색으로 모두 120색을 제시한 것이다<sup>92)</sup>.

컬러는 각 컬러별 이니셜로 지칭하여 Red는 R, Yellow Red는 YR, Yellow는 Y, Green Yellow는 GY, Green은 G, Blue Green은 BG, Blue는 B, Purple Blue는 PB, Purple은 P, Red Purple은 RP, Neutral 은 N, 기타군은 기타로 분류한다.

톤의 경우, 11단계의 색조 분류에 의거하여 V(vivid), S(strong), B(bright),

---

92) <http://www.iricolor.com>(검색일자:2013.11.14.)

P(pale), VP(very pale), Lgr(light grayish), L(light), Gr(grayish), Dl(dull), Dp(deep), Dk(dark)로 분류한다.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은 명도 단계인 10개로 나누어 가장 밝은 화이트를 N9.5로 시작하여 저명도인 블랙으로 갈수록 N9, N8, N7, N6, N5, N4, N3, N2, N1.5로 표시하였다.

I.R.I Hue & Tone 120 System

HUE TONE	R	YR	Y	GY	G	BG	B	PB	P	RP	Neutral
V											N9.5
S											N9
B											N8
P											N7
Vp											N6
Lgr											N5
L											N4
Gr											N3
Dl											N2
Dp											N1
Dk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9> I.R.I Hue & Tone 120 System  
(출처 : <http://www.iricolor.com>. 색채연구소)

### Ⅲ. 퍼스트레이디 패션 컬러 이미지

패션은 착용자의 성격, 직업, 나이, 성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착용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처럼 패션은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sup>93)</sup>.

패션 이미지라는 용어는 그 대상을 의복에만 한정된 연구의 경우에 의복 이미지로 분류되는데, 의복 이미지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 재질, 형태의 특성과 관련되어 변화된다. 이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의복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결합하여 의복의 전체적 이미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감정, 정서들을 전달하여 심리적인 효과를 좌우한다.<sup>94)</sup>

컬러는 패션 이미지를 이루는 디자인의 기본 요소 중에서 먼저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써 개인의 성격, 취향, 심리상태를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어 컬러를 잘 사용하면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컬러 이미지는 색채, 명도, 채도의 색의 삼속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명도와 채도는 구별되는 색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컬러를 지각할 때는 이 두 가지의 통합된 개념인 톤으로써 인식하게 된다. 컬러는 의복에 있어 이미지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 요소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sup>95)</sup>.

---

93) 임은숙(2013).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색채전공. p.7

94) Horn, M.J., Gurel, L.M.(1998). The Second Skin. 서울 : 도서출판 까치. p.295

95) 김수운(2001).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pp.17-20

국가행사 시, 퍼스트레이디는 국가 내 행사에 참여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도를 높여 관심을 증가시키고, 국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한다. 미국, 프랑스의 경우, 정치활동과 정책활동을, 영국의 경우, 왕실 행사를 포함한다.

외교활동 시, 1789년 이래로 퍼스트레이디는 외국국가 수반, 대사 및 외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안주인으로서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외교정책을 개선하는데 있어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하며,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국민접견 시, 여러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 및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가의 안주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자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사회활동 시, 퍼스트레이디로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가 국가 이미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여 여성 리더십의 모델이 되기도 하며 여성들의 공감을 사기도 한다.

개인활동 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이동 시에 그리고 국외 방문 시,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언론에 노출된 경우로, 퍼스트레이디의 취향이나 개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퍼스트레이디 패션은 당대의 패션 아이콘으로써 국가 경제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자 시각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이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을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라고 표현해 패션은 퍼스트레이디에게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sup>96)</sup>로써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활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에 바탕이 될 수 있는 퍼스트레이디들의 성장과정, 성격, 활동 등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패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96)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200686>(검색일자:2013.11.28.)

퍼스트레이디의 의상 컬러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사진자료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www.gettyimages.com'을 중심으로 블로그, 기사 등에서 찾은 이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가활동,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식석상에서 나타난 모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색상 분석 시, I.R.I.의 'Hue&Tone 120System'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조색을 중심으로 Adobe Illustrator로 색상을 분석 후, 먼셀 색상값으로 판단하여 R계열, Y계열, G계열, B계열, P계열, 무채색, Multi Color로 나누었다. 상의와 하의가 다른 색인 경우, 상의와 하의 둘 중 하나가 무채색일 때 상의와 하의 둘 중 다른 한 쪽의 색상으로 색채 계열을 분류하였으며, 상의와 하의 둘 다 유채색일 경우와 다색으로 프린트되어진 의상은 Multi color로 분류하였다.

## 1. 미셸 오바마

### 1) 미셸 오바마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미셸 오바마에게 패션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무기이다. 미셸 오바마의 룩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이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이 엿보이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법칙과 기술이 돋보인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어둡고 중립적인 색상을 고르는 다른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자신을 스타일링하는데<sup>97)</sup>, 미셸 오바마는 원색의 화려한 색상의 옷을 즐겨 착용하며, 때로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한 패션을 추구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 언론들은 미셸이 유독 강렬한 색상을 즐겨 입는 이유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컬러의 의상을 택함으로써 불황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희망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한다<sup>98)</sup>.

미셸 오바마의 패션에는 벨트가 들어간다. 벨트는 의상을 더 단정하게 만들고 몸매의 굴곡을 강조하여 ‘모래시계 룩’, 귀여운 ‘벨라인 룩’을 만들어 내는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또한 미셸 오바마는 기존의 퍼스트레이디가 시도하지 않았던 민소매 의상을 착용하여 당당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스타킹을 잘 착용하지 않고 자신의 각선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또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민소매 스타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셸 오바마는 명품 브랜드나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만을 선호했던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 달리 ‘제이크루(J-Crew)’, ‘갭(GAP)’ 등 대중적인 브랜드나 신진 디자이너의 의상을 선택하여 미국 패션 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브랜드 이름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국식 패션으로 미

97) 수잔 스위머, 최유나 역(2009). 전계서. pp.39-43

98) 김재희(2010). 여자, 미셸을 탐하라. 서울 : 눈과마음. pp.237-239

셀 오바마의 패션 센스를 엿볼 수 있다.

미셸 오바마는 각국의 정상을 만나는 자리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트렌치코트, 트위드 자켓, 스커트 수트 등을 착용하여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색상은 주로 모노톤이나 톤 다운된 컬러를 주로 사용하며 트위드, 개버딘, 캐시미어 등 무늬가 없는 솔리드 직물의 의상에 블랙 펌프스를 매치하여 세련되고 지적이면서 격조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가디건, A라인의 원피스로 바디의 곡선미를 드러내고 아이보리, 하늘색, 노랑색 등의 파스텔 색상을 사용하고 꽃무늬나 레이스가 있는 의상을 착용하여 페미닌한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하며, 블랙, 화이트, 그레이 등의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의상에 진주목걸이와 진주귀걸이를 매치하여 우아하고 지적이며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미셸 오바마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밝고 건강하며 활발한 액티브 이미지를 연출하여 긍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공식적인 연설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인 모던한 의상을 착용하여 도시적인 세련미를 연출한다.

미셸 오바마가 개인활동 시 기하학적인 무늬, 꽃무늬, 자연무늬, 자수 문양 등의 프린트와 선명한 비비드 컬러,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표현된 의상을 착용하여 이국적인 느낌의 에스닉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미셸 오바마의 사진 457장을 대상으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 상황 별 패션 컬러 이미지

### (1) 국가행사 시

미셸 오바마의 국가행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48개로 R계열과 Y계열은 각각 6개로 분석되어 12.50%를 차지하였고, G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2.08%를 차지하였으며, B계열은 7개로 분석되어 14.58%를 차지하였다. P계열은 9개로 분석되어 18.75%를 차지하였고, 무채색은 16개로 분석되어 33.33%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3개로 분석되어 6.25%를 차지하였다.

국가행사 시 및 정치, 정책활동 시에는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퍼스트레이디로서 격식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0>은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 날, 미셸 오바마가 입은 레몬글라스색 스리피스 정장은 당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쿠바계 무명 디자이너 이사벨 톨레도(Isabel Toledo)의 옷을 선택하여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오바마 정부의 의지와 무명 패션 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기회的大门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었다<sup>99)</sup>. 또한 희망과 낙관의 상징인 옐로우 계열의 레몬글라스색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미국을 재건해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림 11>은 2009년 11월, 미국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헌화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밝은 톤의 파란색 원피스와 코트를 착용하고 굵은 벨트를 매치하여 세련되면서 단정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12>는 2012년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2차 TV 토론회 날, 미셸 오바마는 10월이 유방암 인식의 달이라는 점을 의식해 드레스 코드를 핑크색 마이클 코어스의 투피스를 선택하였다. 비비드 톤의 의상에 진주 목걸이를 하여 환하고 에너지 넘치지만 현 퍼스트레이디다운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99) 김재희(2010). 전게서. pp.242-245

<그림 13>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날에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패션코드는 톰 브라운(Thom Browne)의 감청색 테일러드 코트로 훨씬 색감이 어둡고 디자인도 단정해 남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미셸 오바마가 미국의 경제나 정치, 외교 전 분야에서 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백악관에서 역할이 더 힘 있고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특히 파랑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만큼 파랑색으로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뉴욕 파슨스 디자인대학(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의 시몬 콜린즈(Simon Collins) 패션학과장이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sup>100</sup>).



<그림 10>  
2009년 버락오바마  
대통령 취임식<sup>101</sup>)



<그림 11>  
미국 재향군인의  
날 행사 참석<sup>102</sup>)



<그림 12>  
2012년 대선 2차  
토론회 참석<sup>10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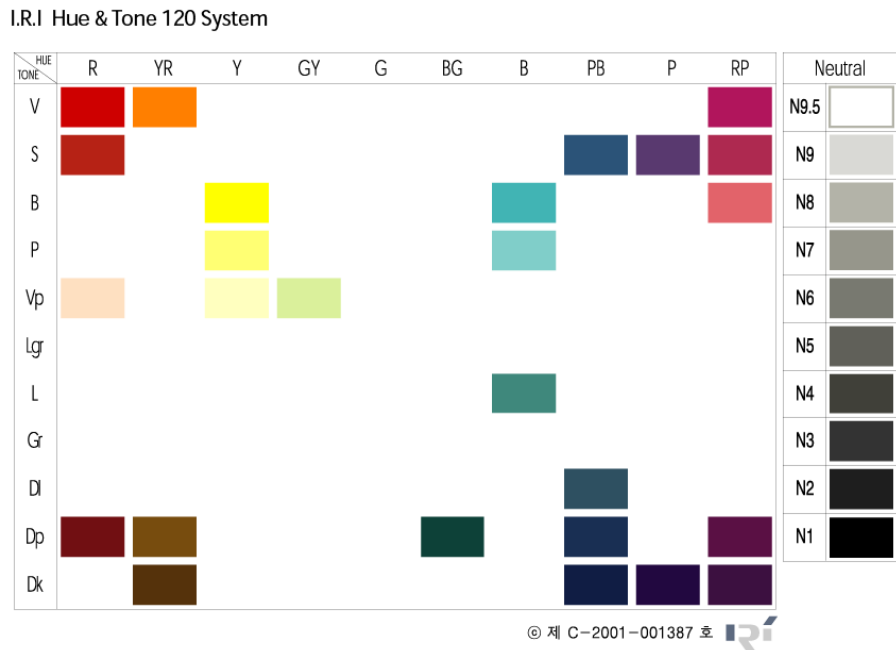
<그림 13>  
2013년 버락오바마  
대통령 취임식<sup>104</sup>)

10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2696166602680344&DCD=A00801&OutLnkChk=Y>(검색일자:2013.8.2.)

101) <http://www.bbc.co.uk/news/magazine-21180976>(검색일자:2013.10.21.)

102)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irst-lady-michelle-obama-nancy-horst-u-s-vice-president-news-photo/92987974>(검색일자:2013.10.20.)

미셸 오바마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14>와 같다.   
 딥 톤은 R, YR, BG, PB, R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크 톤은 YR,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스트롱 톤은 R,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 YR, RP계열에서, 브라이트 톤은 Y, B, R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Y, GY계열에서, 페일 톤은 Y, B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B계열에서, 덜 톤은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라이트 그레이시 톤,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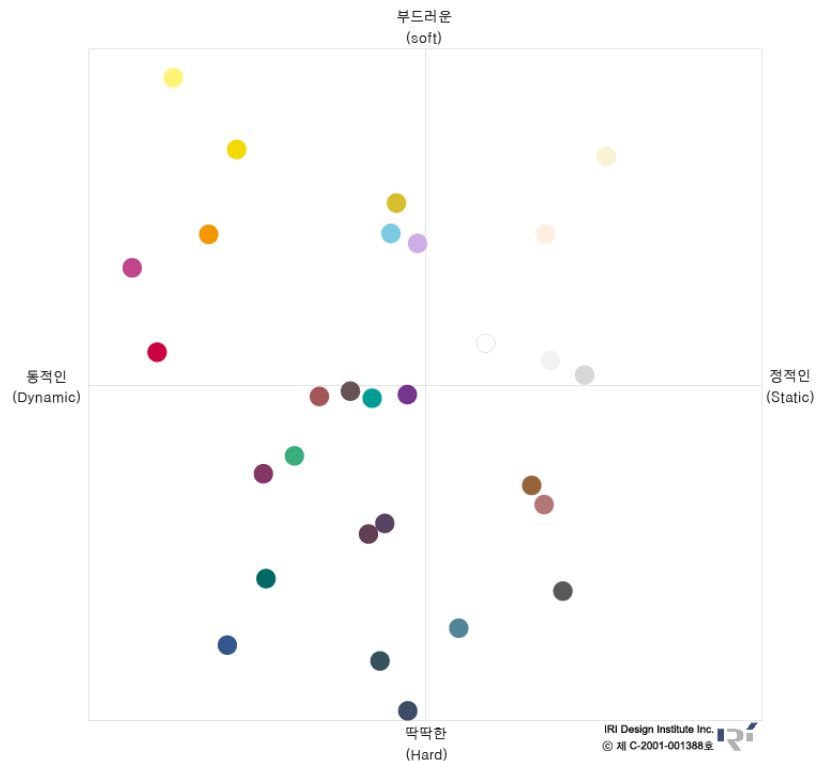


<그림 14> 미셸 오바마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 103) [http://www.koreafashion.org/\\_html/information/fa\\_story\\_view.asp?cataIdx=803&boardId=story&clientId=256&num=217&pageNum=1&srchItem=&srchWord](http://www.koreafashion.org/_html/information/fa_story_view.asp?cataIdx=803&boardId=story&clientId=256&num=217&pageNum=1&srchItem=&srchWord)(검색일자:2013.10.21.)
- 10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2696166602680344&DCD=A00801&OutLnkChk=Y>(검색일자:2013.8.2.)

미셸 오바마의 국가행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15>와 같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편이나, '정적인'보다는 '동적인'쪽으로 약간 빈도가 높으며 '부드러운'보다는 '딱딱한'쪽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행사의 경우, '딱딱한'느낌의 의상 컬러를 선택하여 자신의 역할에 힘을 실어 무게감을 주었으며, 상황에 따라 행사의 의미에 상응하는 컬러나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원색의 '동적인'이미지의 컬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15> 미셸 오바마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2) 외교활동 시

미셸 오바마의 외교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19개로 Y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15.79%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6개로 분석되어 31.58%를 차지하였으며, P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5.26%를 차지하였다. 무채색은 7개로 분석되어 36.84%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2개로 분석되어 10.53%를 차지하였다. R계열, Y계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활동 시에는 엘레강스, 페미닌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지적이며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6>은 2009년 4월, G20 정상회담 개최지인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미셸 오바마는 제이슨 우(Jason Woo)의 밝은 레몬연두색 실크 드레스와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의 검은색 코트를 매치하여 입었다. 『위민스 웨어(Women's Wear) 데일리』에서 미셸 오바마가 입은 비비드 톤의 레몬연두빛의 의상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유럽 순방을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sup>105)</sup>.

<그림 17>은 2010년 11월, 인도 방문 첫날 미셸 오바마는 소박한 스타일의 회색 양장을 입었는데 옷 앞면에 일렬로 달린 단추로 동양적인 분위기를 살려 인도 전통복장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이 옷은 진회색을 띠어 마침 인도 일정 첫날의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sup>106)</sup>

<그림 18>은 2011년 5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비비드 톤의 보라색 원피스와 파랑색 코트를 착용하여 원색의 밝고 경쾌하면서도 우아하며 페미닌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9>는 2011년 5월, 영국 방문 후, G8 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할 때의 모습이다.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된 원피스 수트에 보라색 펌프스를 매치하여 세련되면서 엘레강스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105) <http://blog.daum.net/goodswim/7258431>(검색일자:2013.7.18.)

1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2025781>(검색일자:2013.7.18.)



<그림 16>  
2009년 G20 정상  
회담 영국도착<sup>107)</sup>



<그림 17>  
인도 방문<sup>108)</sup>



<그림 18>  
영국 방문<sup>109)</sup>



<그림 19>  
프랑스 출국<sup>110)</sup>

107) <http://blog.daum.net/goodswim/7258431>(검색일자:2013.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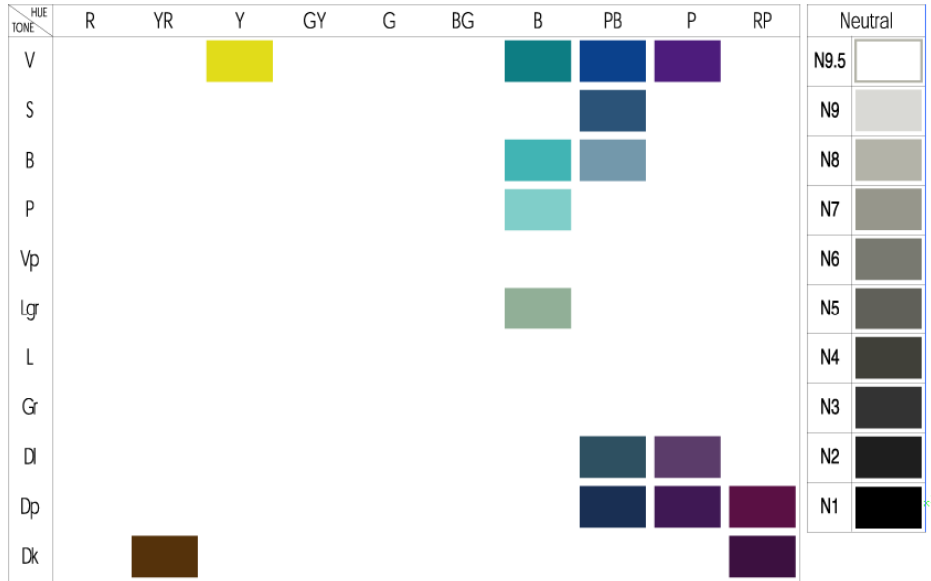
10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air-force-one-carrying-obama-and-his-wife-michelle-news-photo/106626933>(검색일자:2013.9.27.)

109)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ime-minister-david-feron-with-samantha-feron-greet-news-photo/158161081>(검색일자:2013.10.19.)

11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and-first-lady-michelle-obama-arrive-news-photo/114726119>(검색일자:2013.10.19.)

미셸 오바마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20>과 같다. 비비드 톤은 Y, B,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딥 톤은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브라이트 톤과 덜 톤은 B,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YR, RP계열에서 나타났다. 스트롱 톤은 PB계열에서 페일 톤과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B계열에서 나타났으며 베리 페일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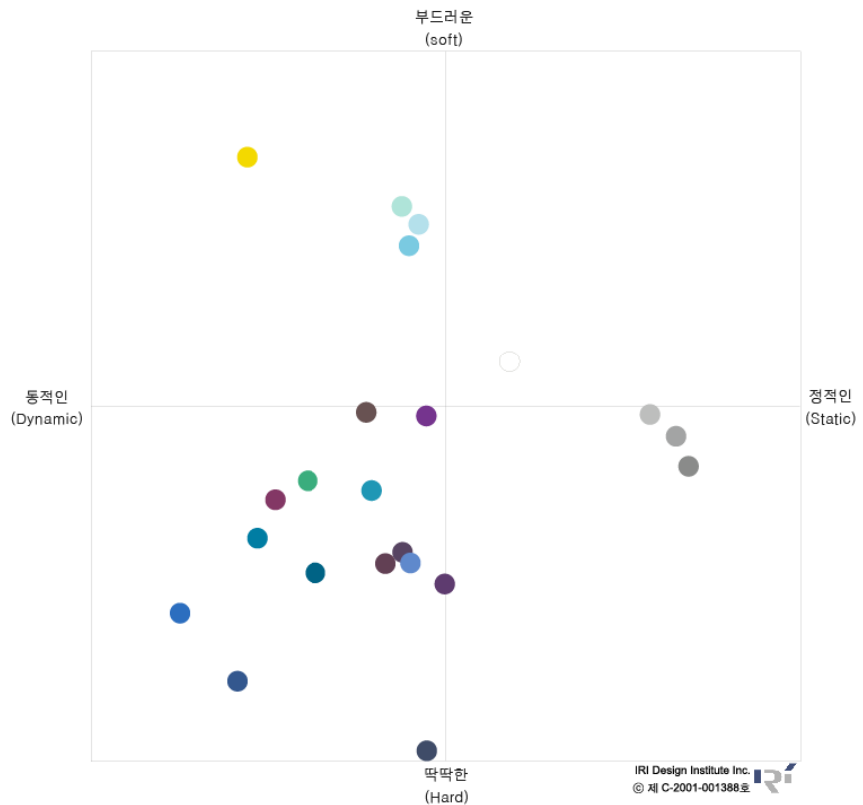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20> 미셸 오바마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미셸 오바마의 외교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동적인’, ‘딱딱한’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외교활동 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밝고 당당하면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이미지도 나타나 퍼스트레이디로서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도 보여주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21> 미셸 오바마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3) 국민접견 시

미셸 오바마의 국민접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46개로 R계열은 7개로 분석되어 15.22%를 차지하였고, Y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2.17%를 차지하였으며, G계열은 2개로 분석되어 4.35%를 차지하였다. B계열은 8개로 분석되어 17.39%를 차지하였고, P계열은 5개로 분석되어 10.87%를 차지하였다. 무채색은 19개로 분석되어 41.30%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4개로 분석되어 8.70%를 차지하였다.

국민접견 시에는 엘레강스, 페미닌, 모던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적이며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안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22>는 2011년 10월,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 국민만찬에서 입은 딥 톤의 보라색 드레스는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두리 정'의 작품으로 밝혀져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미셸 오바마의 한국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23>은 2011년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만찬용 의상은 붉은색의 '알렉산더 맥퀸' 드레스였다. 중국인들에게 붉은색은 행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색인 붉은색 드레스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T.P.O. 패션에 적절한 예로 보여지며, 미셸 오바마의 세심한 감각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sup>111)</sup>.

<그림 24>는 2009년 4월, G20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셸 오바마는 아이보리 탑, 블랙 스커트, 블랙 카디건을 입고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을 알현하였다. 모노톤의 심플한 의상을 착용하여 여왕에 대한 격식을 차렸으며 G20만찬 때에는 가디건을 벗어 미셸 오바마 특유의 민소매 룩을 연출하여 건강미를 과시하였다.

<그림 25>는 2009년 4월, 미셸 오바마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의 모습이다. 태국 출신의 신예 디자이너 타쿰

---

1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121005005>(검색일자:20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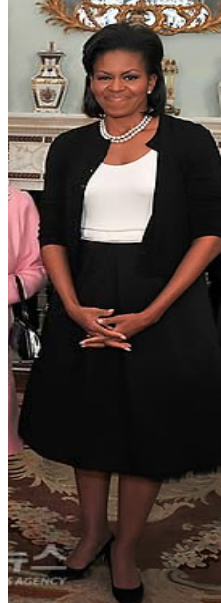
파니치갈(Thakoon Panichgul)이 디자인한 딥 톤의 자주색 드레스와 핑크색 꽃 무늬가 새겨진 검은색 코트로 프랑스 정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화려함과 당당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22>  
2011년 한미정상회담 극빈만찬<sup>112)</sup>



<그림 23>  
2011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백악관 방문<sup>113)</sup>



<그림 24>  
2009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알현<sup>114)</sup>



<그림 25>  
2009년 NATO회담 프랑스 방문<sup>115)</sup>

11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419098267364&outlink=1> (검색일자:2013.7.18.)

113)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gojhm&folder=2&list\\_id=12024463](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gojhm&folder=2&list_id=12024463)(검색일자:2013.8.2.)

1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585660>(검색일자:2013.7.18.)

115)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u-s-first-lady-michelle-obama-news-photo/85803714>(검색일자:2013.9.27.)

미셸 오바마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26>과 같다.

스트롱 톤은 YR, B, PB, RP계열, 딥 톤은 BG, PB, P, R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R, YR, Y계열에서, 브라이트 톤은 B, PB, RP계열에서, 페일 톤은 PB, P, RP계열에서, 다크 톤은 R, PB,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베리 페일 톤은 Y계열에서만 나타났으며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 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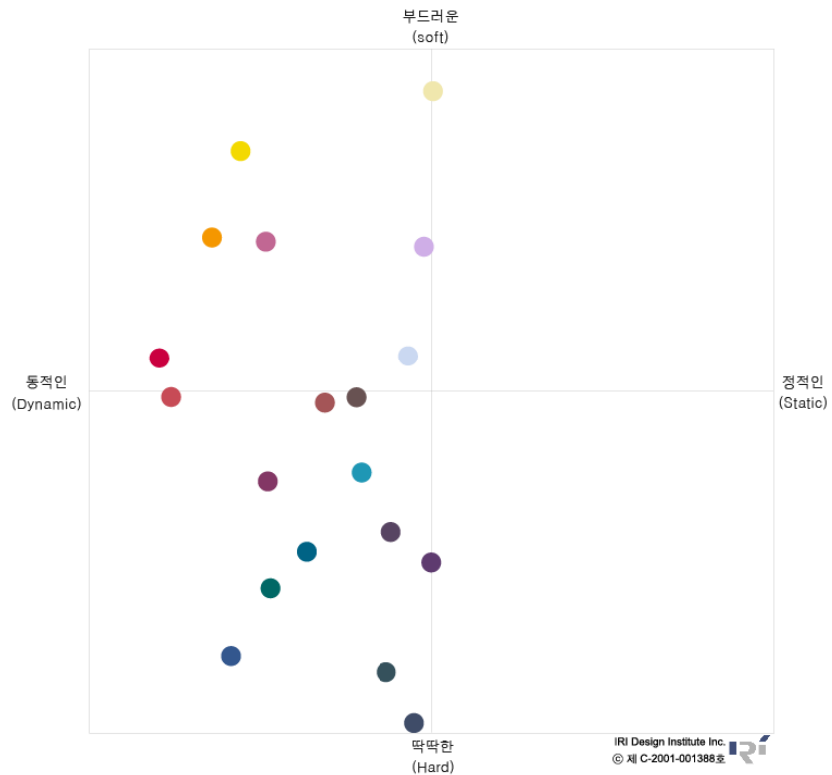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26> 미셸 오바마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미셸 오바마의 국민접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27>과 같다. 전체적으로 ‘동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대통령이 나 수상 및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가의 안주인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며 상황에 따라, 국가의 이미지, 상황 등에 따라 ‘부드러운’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골고루 연출하여 T.P.O.에 맞는 패션을 선보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27> 미셸 오바마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4) 사회활동 시

미셸 오바마의 사회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296개로 R계열은 48개로 분석되어 16.22%를 차지하였고, Y계열은 29개로 분석되어 9.80%를 차지하였으며, G계열은 22개로 분석되어 7.43%를 차지하였다. B계열은 38개로 분석되어 12.84%를 차지하였고, P계열은 21개로 분석되어 7.09%를 차지하였다. 무채색은 86개로 분석되어 29.05%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52개로 분석되어 17.57%를 차지하였다.

사회활동 시에는 페미닌, 액티브, 에스닉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친근하고 따뜻하며 밝은 이미지의 퍼스트레이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28>은 2009년 5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 American Wing 리본 커팅식에 참여한 모습이다. 라이트 톤의 보라색 투피스 정장을 착용하여 부드러우며 페미닌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29>는 2009년 5월, DC School and Garden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미셸 오바마는 비비드 톤의 노랑색 가디건과 화려한 컬러의 프린트가 있는 블라우스, 연한 그레이 색상의 바지를 착용하여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가드닝 (Gardening) 행사에 적합한 의상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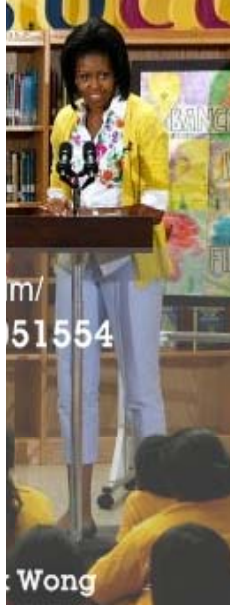
<그림 30>은 2009년 9월, 백악관에서 열린 올림픽 선수들 초청 행사 때의 모습이다. 운동선수들을 격려하고 스포티한 느낌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비비드톤의 파랑색과 노랑색, 그리고 딥 톤의 프린트로 된 스커트를 매치하여 밝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31>은 2011년 3월, 뉴욕시립도서관에서 열린 NEA's Read Across America Kickoff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다. 브라이트 톤의 핑크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상의와 비비드 톤의 스커트를 매치하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28>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행사<sup>116)</sup>



<그림 29>

DC School and  
Garden 방문<sup>117)</sup>



<그림 30>

올림픽 선수 백악  
관 초청 행사<sup>118)</sup>



<그림 31>

NEA's Read  
Across America  
Kickoff 행사<sup>119)</sup>

116)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irst-lady-michelle-obama-and-new-york-city-mayor-michael-r-news-photo/87838297>(검색일자: 2013.10.21.)

117)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irst-lady-michelle-obama-speaks-to-students-as-she-visits-news-photo/88051554>(검색일자:2013.10.21.)

11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and-first-lady-michelle-obama-watch-news-photo/90861935>(검색일자:2013.10.21.)

119)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irst-lady-michelle-obama-attends-neas-read-across-america-news-photo/109719866>(2013.10.21.)

미셸 오바마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32>와 같다.

브라이트 톤은 Y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컬러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이 GY, P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컬러에서 나타났다. 페일 톤은 R, Y, BG, 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딥 톤은 YR, Y, BG,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스트롱 톤은 G, BG, B,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라이트 톤은 Y, P, R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GY, PB계열에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 P계열에서, 덜 톤은 G,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PB, RP계열에서 나타났고 그레이시 톤은 YR계열에서만 나타났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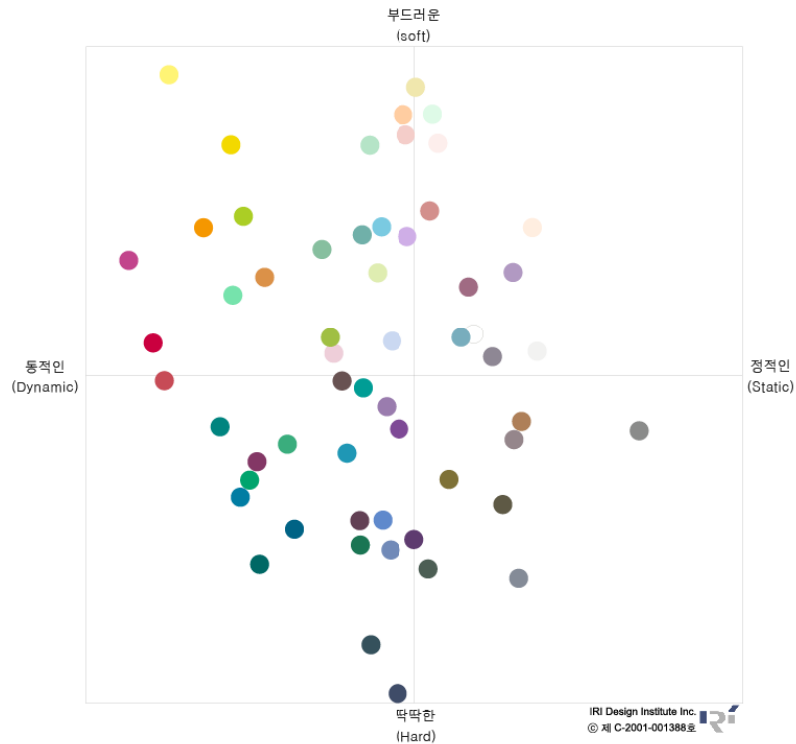
HUE TONE	R	YR	Y	GY	G	BG	B	PB	P	RP	Neutral
V	■	■	■		■	■	■	■		■	N9.5
S						■	■	■	■	■	N9
B	■	■		■	■		■	■	■	■	N8
P	■		■			■	■		■	■	N7
Vp				■				■			N6
Lg			■						■		N5
L			■						■	■	N4
Gr		■									N3
DI					■			■			N2
Dp		■	■			■		■	■	■	N1
Dk								■		■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32> 미셸 오바마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미셸 오바마의 사회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33>과 같다. 전체적으로 약간 ‘동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시에는 행사, 상황, 역할 등에 따라 T.P.O.에 맞는 의상컬러를 선택하여 ‘부드러운’, ‘딱딱한’ 이미지를 골고루 연출하였다. 여성 및 아동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경우,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로 연출하였고, 문화적 행사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딱딱한’ 이미지를 주로 연출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33> 미셸 오바마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5) 개인활동 시

미셸 오바마의 개인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48개로 R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6.25%를 차지하였고, Y계열, G계열은 각각 1개로 분석되어 2.08%를 차지하였으며, B계열은 8개로 분석되어 16.67%를 차지하였다. P계열은 4개로 분석되어 8.33%를 차지하였고 무채색은 26개로 분석되어 54.17%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5개로 분석되어 10.42%를 차지하였다.

개인활동 시에는 페미닌, 에스닉, 액티브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34>는 2009년 10월, 버락 오바마와 두 딸과 함께 교회(St. John's Episcopal Church)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페일 톤의 핑크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착용하고, 브라운 색의 리본벨트를 매치하여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35>는 2009년 7월,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날 때의 모습이다. 푸른색 계열의 트로피컬 무늬가 있는 원피스와 노란색 가디건, 벨트, 진주목걸이를 매치하여 밝고 경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36>은 2009년 10월, 공식 일정 후, 백악관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다.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디자인의 원피스와 검은색 가디건, 블랙 펌프스를 매치하여 세련되고 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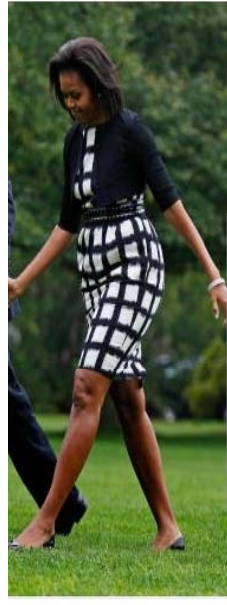
<그림 37>은 2013년 6월, 가족들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날 때의 모습이다. 블랙과 화이트의 스트라이프가 있는 원피스와 플랫폼슈즈를 매치하여 세련되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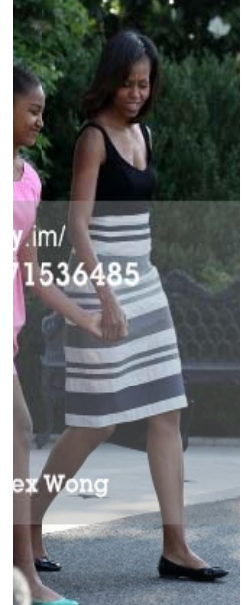
<그림 34>  
교회 예배<sup>120)</sup>



<그림 35>  
모스크바 여행<sup>121)</sup>



<그림 36>  
백악관 도착<sup>122)</sup>



<그림 37>  
아프리카 여행<sup>123)</sup>

12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and-first-lady-michelle-obama-depart-news-photo/91752858>(검색일자:2013.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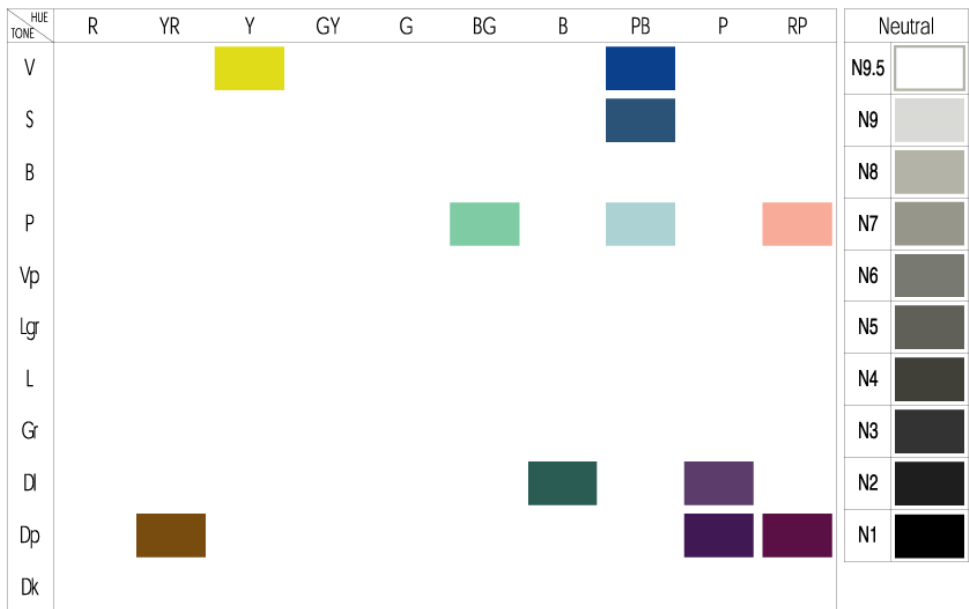
121)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and-his-wife-michelle-leave-the-news-photo/88844673>(검색일자:2013.10.19.)

122)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and-his-wife-first-lady-michelle-news-photo/91345207>(검색일자:2013.10.20.)

123)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walks-out-from-the-residence-with-news-photo/1715364859>검색일자:2013.10.20.)

미셸 오바마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38>과 같다. 페일 톤은 BG, PB, RP계열에서, 딥 톤은 YR, P, RP계열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Y, PB계열에서 덜 톤은 B, P계열에서 나타났다. 스트롱 톤은 PB계열만 나타났으며 브라이트 톤,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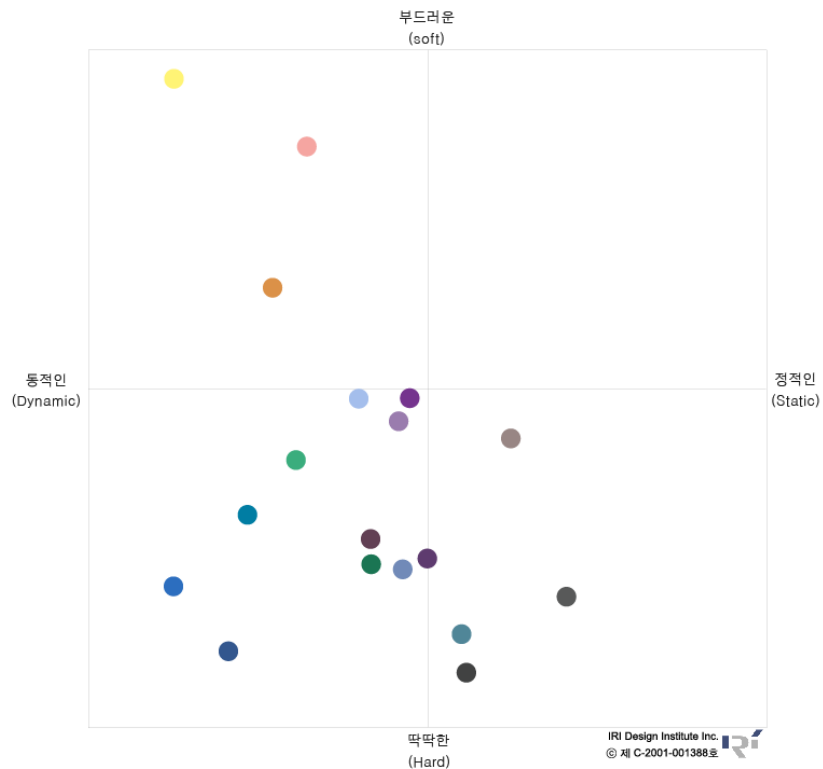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38> 미셸 오바마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미셸 오바마의 개인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39>와 같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활동 시에는 주로 강렬한 컬러나 차분한 컬러를 사용하여 액티브하거나 페미닌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프린트가 있는 의상을 주로 사용하여 ‘딱딱한’ 컬러를 사용하여도 밝고 편안한 느낌의 에스닉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39> 미셸 오바마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미셸 오바마의 상황 별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미셸 오바마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상황 별	대표사진	패션 이미지	패션 컬러 분석			패션 컬러 이미지	
			컬러 분석(%)	Hue & Tone 120 System 분석	단색 Image Scale		
국가행사 시		클래식 엘레강스	R	12.50			희망 긍정 단아 권위 지적 세련
			Y	12.50			
			G	2.08			
			B	14.58			
			P	18.75			
			Mono	33.33			
			Multi	6.25			
외교활동 시		엘레강스 페미닌	R	-			우아 지적 세련 차분 겸손
			Y	15.79			
			G	-			
			B	31.58			
			P	5.26			
			Mono	36.84			
			Multi	10.53			
국민접견 시		엘레강스 페미닌 모던	R	15.22			고귀 단아 우아 세련
			Y	2.17			
			G	4.35			
			B	17.39			
			P	10.87			
			Mono	41.30			
			Multi	8.70			
사회활동 시		페미닌 액티브 에스닉	R	16.22			희망 밝음 부드러움 지혜 믿음 편안함
			Y	9.80			
			G	7.43			
			B	12.84			
			P	7.09			
			Mono	29.05			
			Multi	17.57			
개인활동 시		페미닌 에스닉 액티브	R	6.25			편안함 부드러움 평화 로맨틱 세련
			Y	2.08			
			G	2.08			
			B	16.67			
			P	8.33			
			Mono	54.17			
			Multi	10.42			

## 2. 케이트 미들턴

### 1) 케이트 미들턴

영국의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의 공식석상이나 평소 입는 옷차림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퍼스트레이디룩을 볼 수 있다. 케이트 미들턴이 가장 자주 입는 스타일은 늘씬한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A라인으로 퍼지는 원피스,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클래식한 아이템을 즐겨 착용한다. 왕실행사가 있거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비출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로,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단정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가미된 스타일을 선호한다. 주로 부드러운 페일 톤의 아이보리, 노랑, 연핑크, 하늘색 등의 파스텔 색상을 사용하고 프린트가 있는 의상을 선택하여 밝고 여성스러우며 화사한 느낌을 준다. 페미닌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젊은 왕가의 일원으로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우며 아름다운 왕세자비의 모습을 나타낸다. 케이트 미들턴은 신분에 걸맞게 공식석상에서는 영국 황실의 상징색의 로열블루생의 의상을 즐겨 착용하며, 심플한 블랙 펌프스, 액세서리, 작은 클러치를 매치하여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왕세자비의 품격을 높인다. 허리에 살짝 밴드가 들어간 원피스나, 부분적인 디테일을 넣어 악센트를 준 원피스들은 복고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찬사를 받으며 ‘미들턴 스타일’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럽게 웨이브 진 롱 헤어를 유지하며, 케이트 미들턴의 상징이자 영국왕실의 상징인 화려한 모자, 쿠티르적인 헤드기어로 의상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왕실의 일원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왕세자비로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여<sup>124)</sup>, 독창적이고 기묘하면서도 비정형적인 구조로

---

124) Sara Cywinski(2011). Kate: Style Princess: The Fashion and Beauty Secrets of Britain's Most Glamorous Royal. London : John Blake. pp.47-78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로 ‘미들턴 스타일’을 표현한다.

액세서리로는 모자나 클러치, 진주목걸이, 귀걸이 등을 매치하여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의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케이트미들턴은 공식석상이 아닌 평상시에는 ‘칩-시크(Cheap-Chic)’로 정의되는 대중적인 스타일을 연출하여 캐주얼하면서도 액티브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공식 석상에서는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 중 버버리(burberry)와 멀버리(Mulberry),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하이 브랜드를 즐겨 착용하지만<sup>125)</sup>, 평상시에는 저렴한 H&M, TOPSHOP 등 SPA 브랜드를 자유롭게 믹스 매치하는 21세기의 당찬 신데렐라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케이트 미들턴은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 중 알렉산더 맥퀸을 입을 때 가장 빛난다는 평인데, 2011년 결혼식 당시 알렉산더 맥퀸의 수석디자이너 사라 버튼(Sarah Burton)이 만든 고풍적인 웨딩드레스는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다<sup>126)</sup>.

케이트 미들턴의 사진 150장을 대상으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25) <http://zine.istyle24.com/Fashion/FashionView.aspx?Idx=4682&Menu=4>  
(검색일자:2013.7.10.)

126)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112&aid=0002390853>  
(검색일자:2013.9.10.)

## 2) 상황 별 패션 컬러 이미지

### (1) 국가행사 시

케이트 미들턴의 국가행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33개로 R계열, Y계열, G계열은 각각 3개로 분석되어 9.09%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15개로 분석되어 45.45%를 차지하였으며 무채색은 9개로 분석되어 27.27%를 차지하였다.

국가행사 시 및 왕실행사 시에는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로열블루색의 의상을 즐겨 착용하여 B계열의 빈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주로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한 이미지가 나타나 왕세자비로서 격식을 차리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40>은 2010년 11월, 윌리엄 왕자와 약혼식을 한 날 착용한 의상으로 로열블루색의 원피스를 입어,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하였다. 디자이너 '이사 런던(Issa London)'의 작품으로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품격 있으며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41>은 2012년 3월, The St Patrick's Day Parade에 참석한 모습이다. The St Patrick's Day는 아일랜드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축제로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공식행사이다<sup>127)</sup>. 아일랜드의 상징색은 녹색으로, 케이트 미들턴은 딥 톤의 초록색 코트를 착용하여 St Patrick's Day에 어울리는 패션을 연출하였다.

<그림 42>는 2013년 5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한 버킹엄 궁(Buckingham Palace)에서 열린 가든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브라이트 톤의 노란색 트위드 코트와 아방가르드한 헤드기어를 착용하여 젊은 왕세자비로서 로맨틱하면서도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

1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80415&cid=2000000000&categoryId=200002955>(검색일자:2013.11.18.)

<그림 43>는 2013년 6월,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임신했을 때의 모습으로 페일 톤의 핑크 빛 코트에 아방가르드한 모자를 착용하여 여왕의 생일을 맞아 밝고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아하며 조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40>  
약혼식<sup>128)</sup>



<그림 41>  
The St Patrick's  
Day<sup>129)</sup>



<그림 42>  
엘리자베스여왕주최  
Garden Party<sup>130)</sup>



<그림 43>  
여왕 생일 퍼레이  
드 참석<sup>131)</sup>

12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ince-william-and-kate-middleton-during-a-photocall-in-the-news-photo/158144331>(검색일자:2013.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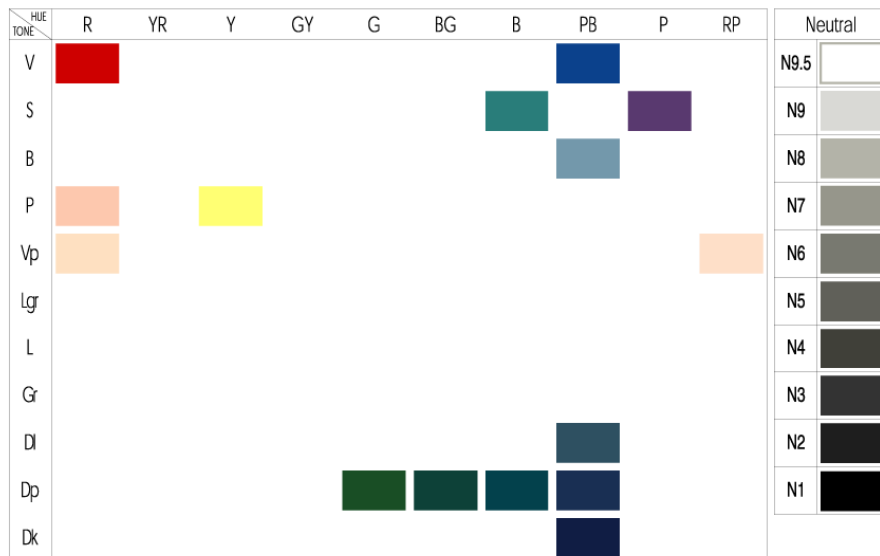
129) <http://blog.naver.com/galaxygogo?Redirect=Log&logNo=140152853917>  
(검색일자:2013.10.27.)

13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milla-duchess-of-cornwall-and-catherine-duchess-of-news-photo/1692459029>(검색일자:2013.10.27.)

131)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ince-harry-catherine-duchess-of-cambridge-and-prince-news-photo/170601372>(검색일자:2013.10.22.)

케이트 미들턴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44>와 같다.   
 딥 톤은 G, BG, B,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R, PB계열에서, 스트롱 톤은 B, P계열에서, 페일 톤은 R, Y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브라이트 톤, 덜 톤, 다크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으며,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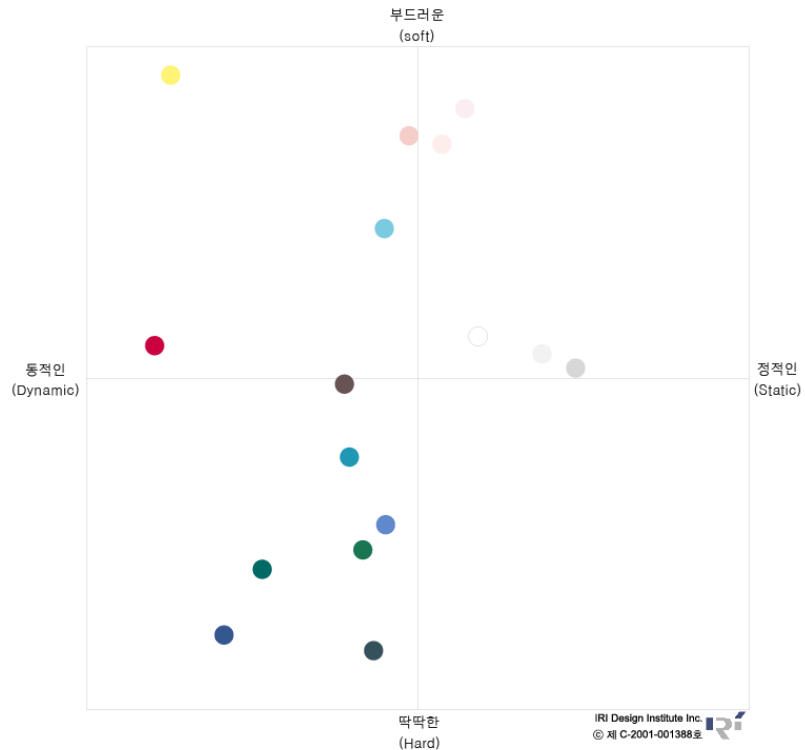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44> 케이트 미들턴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케이트 미들턴의 국가행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45>와 같다. 전체적으로 ‘동적인’ 이미지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으며, ‘부드러운’과 ‘딱딱한’ 이미지가 고르게 나타났다. 왕실행사 시에는 주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선택하여 젊고 우아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연출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선택하여 클래식하면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45> 케이트 미들턴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2) 외교활동 시

케이트 미들턴의 외교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15개로 R계열, Y계열은 각각 3개로 분석되어 20.00%를 차지하였고, G계열, P계열은 각각 1개로 분석되어 6.67%를 차지하였다. B계열은 4개로 분석되어 26.67%를 차지하였으며 무채색은 2개로 분석되어 13.33%를 차지하였으며 Multi Color는 1개로 분석되어 6.67%를 차지하였다.

외교활동 시에는 주로 페미닌, 아방가르드, 엘레강스한 이미지가 나타나, 젊은 왕세자비로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림 46>은 2011년 6월, 캐나다 방문 첫째 날, 국립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스트롱 톤의 네이비 컬러의 레이스 원피스와 페일 톤의 핑크색 클러치를 매치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47>은 2011년 7월, 캐나다 방문 둘째 날,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을 축하하는 The Canada Day를 맞이하여 팔러먼트 힐(Parliament Hill,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흰색 원피스에 캐나다의 상징색인 비비드 톤의 빨간색 헤드기어를 착용하여 The Canada Day에 어울리는 패션을 연출하였다.

<그림 48>은 2011년 7월, 케이트 미들턴이 북아메리카 Calgary Airport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페일 톤의 노랑색 A라인 원피스를 착용하여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49>는 2011년 7월, 캐나다 앨버타 주에 Alberta Government House(앨버타구총독관저)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Alberta Government House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 총독을 대신하여 캐나다 앨버타 주(Alberta)를 다스린 총독 대리인을 위한 관저로<sup>132)</sup>,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중요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케이트 미들턴은 캐나다의 상징색인 비비

---

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7116&cid=200000000&categoryId=200000446>(검색일자:2013.11.18.)

드 톤의 빨간색 투피스를 입어 캐나다에 대한 세심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46>  
캐나다 National  
War Memorial  
방문(133)



<그림 47>  
The Canada Day  
Parliament Hill  
참석(134)



<그림 48>  
북아메리카 방문(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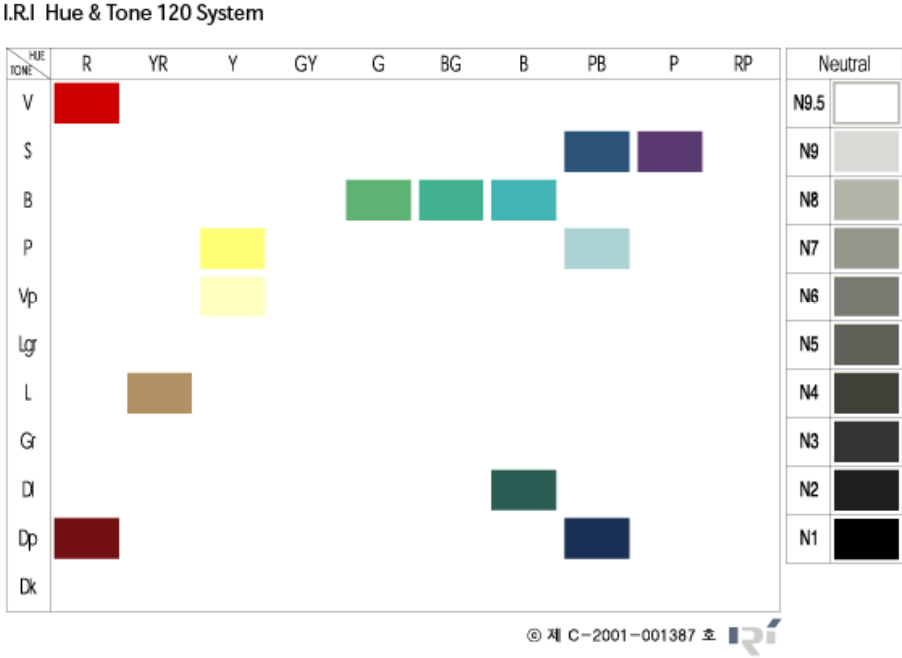


<그림 49>  
A Government Of  
Alberta Reception  
참석(136)

133)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duchess-of-cambridge-with-prime-minister-stephen-news-photo/158978462>(검색일자:2013.10.21.)  
134)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duke-and-duchess-of-cambridge-on-their-official-tour-of-news-photo/158069545>(검색일자:2013.10.22.)  
135)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duchess-of-cambridge-arrives-at-calgary-airport-news-photo/118461274>(검색일자:2013.10.22.)  
136)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duke-and-duchess-attend-a-government-of-alberta-news-photo/158072256>(검색일자:2013.10.22.)

케이트 미들턴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50>과 같다.

브라이트 톤은 G, BG, 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트롱 톤은 PB, P계열에서, 페일 톤은 Y, PB계열에서, 딥 톤은 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Y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YR계열에서, 덜 톤은 B계열에서만 나타났으며 라이트 그레이시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0> 케이트 미들턴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케이트 미들턴의 외교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51>과 같다. 전체적으로 ‘동적인’과 ‘딱딱한’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외교 활동 시,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왕세자비로서 밝고 당당하면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정적인’ 이미지도 나타나 퍼스트레이디로서 차별하고 섬세한 이미지도 보여주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51> 케이트 미들턴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3) 국민접견 시

케이트 미들턴의 국민접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3개로 Y계열은 2개로 분석되어 66.67%를 차지하였고, P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33.33%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R계열, G계열, B계열,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접견 시에는 주로 페미닌, 엘레강스한 이미지가 나타나, 젊은 왕세자비로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림 52>는 2011년 5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방문했을 때 왕실에서의 모습이다. 패션 폴리틱스로 유명한 미셸 오바마와의 패션대결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함께 케이트 미들턴이 착용한 원피스(영국 브랜드 '레이스(Reiss)의 솔라(Shola)' 제품)가 품절되기도 하였다. 페일 톤의 색상으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해 영국 왕세자비로서의 품격을 높였다.

<그림 53>은 2012년 9월,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토니 탄(Tony Tan)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메리 탄(Mary Tan)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 보라색과 자주색으로 프린트된 실크 원피스와 클러치, 팔찌를 매치함으로써, 엘레강스하고 고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54>는 2012년 9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말레이시아 국왕 주최 저녁만찬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금사로 수놓여진 화이트 드레스에 골드색 클러치를 매치함으로써 왕실의 일원다운 고귀하면서도 근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52>  
미국 대통령 방문<sup>137)</sup>



<그림 53>  
싱가포르 방문<sup>138)</sup>



<그림 54>  
싱가포르 방문<sup>2139)</sup>

137)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irst-lady-michelle-obama-meets-with-catherine-duchess-of-news-photo/114572601>(검색일자:2013.10.22.)  
 13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duchess-of-cambridge-prince-william-duke-of-news-photo/151768671>(검색일자:2013.10.22.)  
 139)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duchess-of-cambridge-attends-an-official-dinner-news-photo/151963155>(검색일자:2013.10.22.)

케이트 미들턴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55>와 같다. 비비드 톤은 P,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페일 톤은 YR계열에서 나타났다. 스트롱 톤, 브라이트 톤,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 덜 톤, 딥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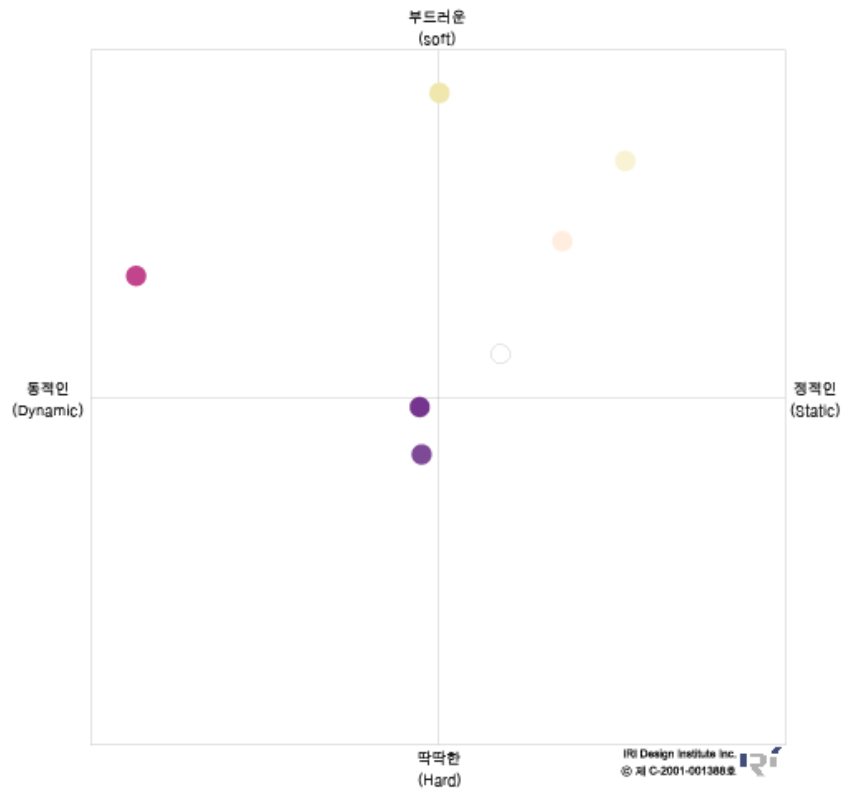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55> 케이트 미들턴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케이트 미들턴의 국민접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56>과 같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접견 시, 3장의 사진으로 판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3장의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드러운’과 ‘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56> 케이트 미들턴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4) 사회활동 시

케이트 미들턴의 사회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92개로 R계열은 16개로 분석되어 17.39%를 차지하였고, Y계열은 10개로 분석되어 10.87%를 차지하였다. G계열은 7개로 분석되어 7.61%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21개로 분석되어 22.83%를 차지하였으며, P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1.09%를 차지하였다. 무채색은 33개로 분석되어 35.87%를 차지하였고 Multi Color는 4개로 분석되어 4.35%를 차지하였다.

사회활동 시에는 주로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부드럽고 상냥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주로 연출하였다.

<그림 57>은 2012년 1월, 영국에서 열린 War Horse Uk Film Premiere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검은색 레이스로 된 이브닝 드레스에 검은색 클러치를 매치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왕세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58>은 2011년 12월, 샌드링엄(Sandringham)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예배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딥 톤의 보라색 코트와 헤드기어를 매치하여 따뜻하고 우아하면서 클래식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59>는 2012년 3월, 동 앵글리아(East Anglias)에 있는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Children's Hospices)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비비드한 컬러의 파란색 원피스에 블랙 벨트를 매치하여 단아하면서도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여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60>은 2013년 4월, Naomi House에 있는 어린이병동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케이트 미들턴은 어린이 호스피스 주간을 기념해 어린이 환자들을 만나고 투병 중인 아이들을 격려했다. 임신 중이었던 케이트 미들턴은 임부복으로 페일 톤의 핑크색 코트와 베리 페일 톤의 원피스를 착용하여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다.



<그림 57>

War Horse UK  
Film Premiere  
참석<sup>140)</sup>



<그림 58>

크리스마스 예배식  
참석<sup>141)</sup>



<그림 59>

Children's  
Hospices 방문<sup>1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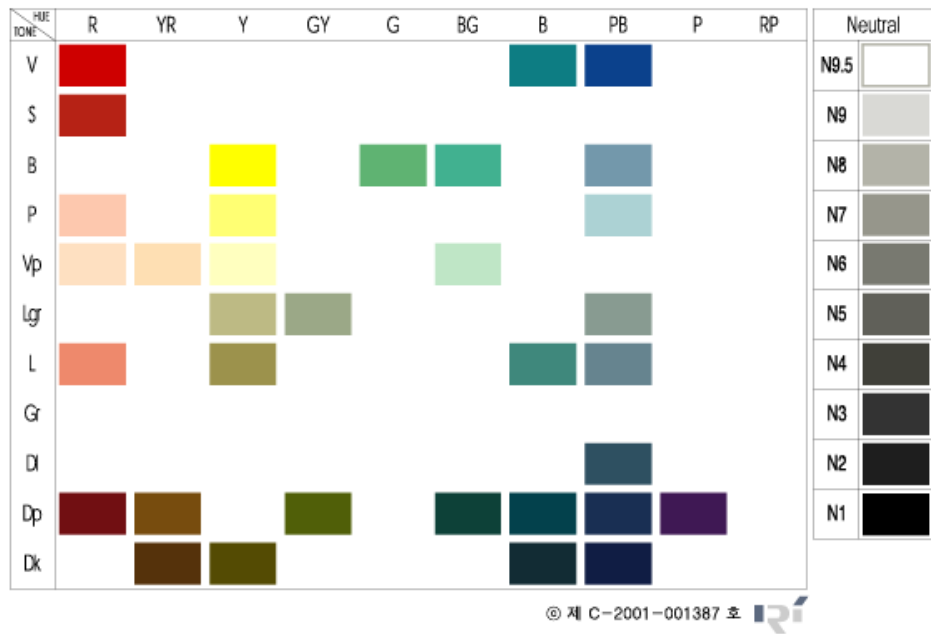
<그림 60>

Naomi House  
방문<sup>143)</sup>

- 
- 14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duke-and-duchess-of-cambridge-arrive-for-the-uk-royal-news-photo/1581454039>(검색일자:2013.10.22.)  
 141)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duchess-of-cambridge-attends-st-mary-magdalene-news-photo/158144493>(검색일자:2013.10.21.)  
 142)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the-duchess-of-cambridge-royal-patron-of-east-news-photo/158152761>(검색일자:2013.10.21.)  
 143)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the-duchess-of-cambridge-meets-children-and-staff-news-photo/167754918>(검색일자:2013.10.27.)

케이트 미들턴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61>과 같다. 딥 톤은 Y, G, RP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이트 톤은 Y, G, BG, PB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YR, Y, BG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R, Y, B,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YR, Y, B,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 B, PB계열에서, 페일 톤은 R, Y, PB계열에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 GY, PB계열에서 나타났고, 스트롱 톤은 R계열에서만,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으며,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그림 61> 케이트 미들턴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케이트 미들턴의 사회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62>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시에는 행사, 상황, 역할 등에 따라 T.P.O.에 맞는 의상컬러를 선택하여 ‘부드러운’, ‘딱딱한’ 이미지를 골고루 연출하였다.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이미지에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컬러를 주로 사용하였고, 엘레강스하고 건강한 이미지에서는 ‘딱딱한’ 이미지의 컬러를 주로 사용하여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62> 케이트 미들턴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5) 개인활동 시

케이트 미들턴의 개인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7개로 G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14.29%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42.86%를 차지하였다. 무채색은 2개로 분석되어 28.57%를 차지하였고, Multi Color는 1개로 분석되어 14.29%를 차지하였다. R계열, Y계열, P계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활동 시에는 주로 페미닌, 액티브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여성스러우면서도 발랄하고 캐주얼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63>은 2011년 4월, 결혼식 후, 버킹엄 궁(Buckingham Palace)에서 허니문 여행을 떠날 때의 모습이다. 결혼식 후, 왕세자비로서 첫 모습을 보이는 자리인 만큼, 페미닌한 디자인의 로열블루색 원피스와 블랙 자켓을 착용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웨지힐을 신음으로써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에 액티브한 모습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림 64>는 2011년 6월, St. Michael and All Angels church에서 열린 지인 Sam Waley-Cohen와 Annabel Ballin의 결혼식에 갔을 때의 모습이다. 블랙과 화이트의 기하학적인 프린트가 있는 원피스와 블랙의 헤드기어, 블랙 클러치, 블랙 펌프스를 매치하여 고상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65>는 2011년 6월, 캐나다 방문 시, 공식적 투어에서의 모습이다. 캐주얼한 차림의 카키색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플랫폼슈즈를 매치하여 경쾌하고 밝으며 액티브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66>은 2013년 7월, 왕세자비가 서열 3위인 왕자를 출산하고 퇴원할 때의 모습이다. 1982년 다이애나비가 출산했을 때와 비슷하게 푸른색 계열의 도트무늬의 원피스를 입어 화제가 되었다. 수수한 느낌의 하늘색 원피스를 착용하여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63>  
허니문 여행<sup>144)</sup>



<그림 64>  
Sam Waley-  
Cohen  
결혼식 참석<sup>145)</sup>



<그림 65>  
캐나다 방문  
공식 투어<sup>146)</sup>



<그림 66>  
출산 후 퇴원<sup>147)</sup>

144)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ince-william-duke-of-cambridge-and-catherine-duchess-of-news-photo/113285699>(검색일자:2013.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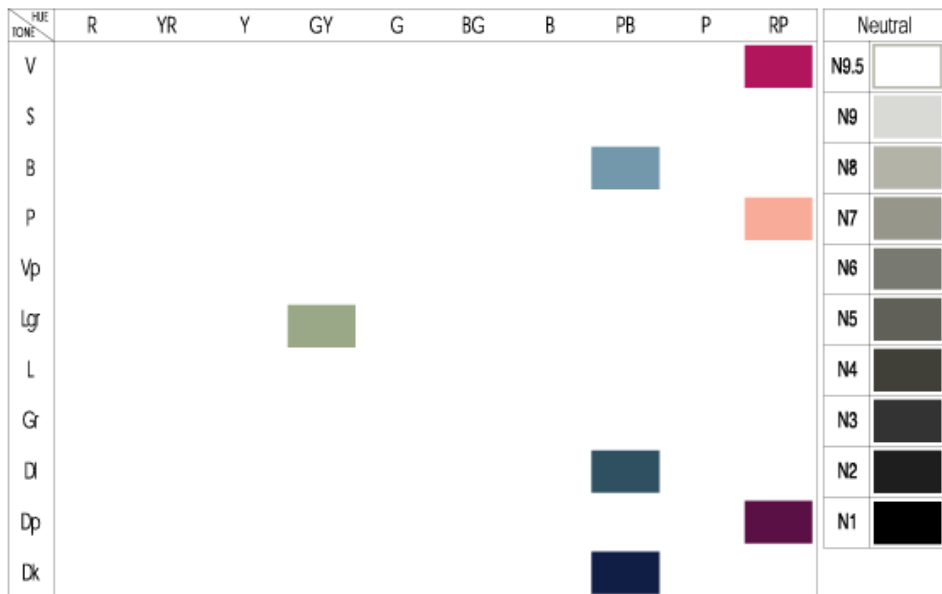
145)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therine-duchess-of-cambridge-attends-the-wedding-of-sam-news-photo/115893353>(검색일자:2013.10.22.)

146)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e-duke-and-duchess-of-cambridge-on-their-official-tour-of-news-photo/158070908>(검색일자:2013.10.22.)

147)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ince-william-duke-of-cambridge-and-catherine-duchess-of-news-photo/174524028>(검색일자:2013.10.22.)

케이트 미들턴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67>과 같다. 다크 톤은 YR,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비비드 톤, 페일 톤, 딥 톤은 RP계열에서, 브라이트 톤,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스트롱 톤,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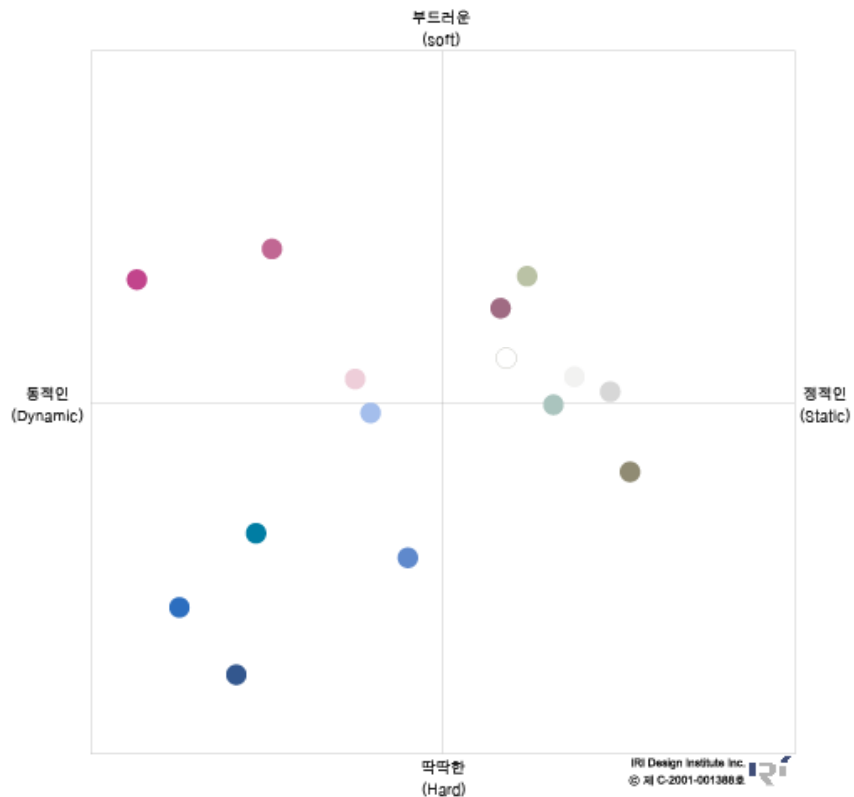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67> 케이트 미들턴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케이트 미들턴의 개인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68>과 같다. 전체적으로 약간 ‘동적인’ 이미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나 고르게 이미지가 나타난 편이다. 페미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때에는 주로 ‘부드러운’과 ‘정적인’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선택하였고, 액티브하고 생명, 건강의 이미지를 연출할 때에는 ‘동적인’과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주로 선택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68> 케이트 미들턴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케이트 미들턴의 상황 별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케이트 미들턴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상황 별	대표사진	패션 이미지	패션 컬러 분석			패션 컬러 이미지	
			컬러 분석(%)	Hue & Tone 120 System 분석	단색 Image Scale		
국가행사 시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R	9.09			우아 로맨틱 밝음 젊음 고귀 긍정
			Y	9.09			
			G	9.09			
			B	45.45			
			P	-			
			Mono	27.27			
			Multi	-			
외교활동 시		페미닌 아방가르드 엘레강스	R	20.00			밝음 우아 젊음 청순 희망 지성
			Y	20.00			
			G	6.67			
			B	26.67			
			P	6.67			
			Mono	13.33			
			Multi	6.67			
국빈접견 시		페미닌 엘레강스	R	-			고귀 단아 우아
			Y	66.67			
			G	-			
			B	-			
			P	33.33			
			Mono	-			
			Multi	-			
사회활동 시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R	17.39			우아 세련 밝음 지혜 건강 순수
			Y	10.87			
			G	7.61			
			B	22.83			
			P	1.09			
			Mono	35.87			
			Multi	4.35			
개인활동 시		페미닌 액티브	R	-			발랄 에너지 건강 생명 세련 절제
			Y	-			
			G	14.29			
			B	42.86			
			P	-			
			Mono	28.57			
			Multi	14.29			

### 3. 카를라 브루니

#### 1) 카를라 브루니

카를라 브루니는 단아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과거 왕가의 보수적인 룰을 넘나드는 모던한 세련미를 과시하며 정제된 로열 패션의 진화를 보여준다. 카를라 브루니의 뛰어난 배경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이 빚어내는 국제적 주목성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정권의 인기에 큰 몫을 하였으며, 대통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sup>148)</sup>.

카를라 브루니는 프랑스 패션을 알리기 위해 자국 유명 디자이너의 브랜드인 샤넬(Chann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의 옷을 즐겨 입는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디올의 옷을 가장 즐겨 입어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다<sup>149)</sup>.

카를라 브루니는 모던하지만 엘레강스함을 잃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퍼스트레이디로서 기품을 드러낸다. 여기에 디테일이 과하지 않지만 한 눈에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원피스와 재킷만으로도 고급스럽고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카를라 브루니의 경우 포멀한 감각에 여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고 당당한 카리스마가 우러나오는 퍼스트레이디룩을 연출한다<sup>150)</sup>.

또한, 블랙, 그레이, 베이지, 화이트 등 무채색 계열의 프린트가 없는 컬러의 매니쉬한 느낌의 의상을 주로 입는다<sup>151)</sup>. 유채색 계열의 컬러를 선택 시, 파랑과 보라색 컬러의 의상을 주로 선택하는데, 네이비블루는 힘과 권력을 느끼

148) 상윤진(2012). 전계서. pp.41-42

149) 이종임(2011). 2012년 대선 가능 후보의 패션 스타일 고찰 및 제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패션 아트학과. p.31

150)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406403](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406403)  
(검색일자:2013.7.10.)

151) 상윤진(2012). 전계서. pp.41-42

게 하는 색으로 침착하고 안정감을 주며, 보라색은 로맨틱, 엘레강스, 쉬크, 댄디를 나타내는<sup>152)</sup> 컬러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패셔너블한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엑세서리로는 심플한 디자인의 의상에 클러치를 매치함으로써 자칫 지루해보일 수 있는 패션에 포인트를 준다. 클러치 또한 의상과 마찬가지로 무채색 계열의 클러치를 자주 사용하며, 파랑과 보라색 컬러의 의상을 착용할 시 클러치도 같은 색상을 매치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카를라 브루니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는 모던이다. ‘현대적’, ‘도시적’, ‘기하학적’인 느낌의 모던은 카를라 브루니를 패셔니스타로 만들어 주었으며, 카를라 브루니가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이다. 흰색과 검은색의 고명도 대비효과를 가지는 의상이나, 단아하고 직선적이며 딱딱한 선으로 이루어진 실루엣과 함께 고급스러운 소재로 모던한 세련미를 과시하며 퍼스트레이디로서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카를라 브루니의 사진 117장을 대상으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52) 이희재(2006). 전계서. p.15

## 2) 상황 별 패션 컬러 이미지

### (1) 국가행사 시

카를라 브루니의 국가행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15개로 B계열과 P계열은 각각 2개로 분석되어 13.33%를 차지하였고, 무채색은 11개로 분석되어 73.33%를 차지하였으며 R, Y, G계열 및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행사 시에는 주로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매니쉬한 이미지가 나타나, 격식을 차리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주로 연출하였다.

<그림 69>는 2008년 7월, 프랑스 혁명 기념일(Bastille Day)을 맞이하여 annual military parade을 관람하는 모습이다.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을 축하하는 분위기만큼, 덜 톤의 보라색 스커트 수트를 착용하여 퍼스트레이디로서 지적이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70>은 2008년 11월, 휴전기념일(the Armistice day) ceremony에 참석한 모습이다. 모노톤의 체크로 된 코트와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가방과 귀걸이를 매치하여 클래식하면서도 단정하고 세련되면서 엄숙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71>은 2009년 7월, 엘리제 궁(Elysee Palace)에서 열린 프랑스 혁명 기념일(Bastille Day)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크리스찬 디올의 화이트 원피스에 블랙 클러치와 블랙 플랫을 매치하여 모던하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72>는 2008년 9월, 프랑스 문화유산의 날(French Heritage day)에 참석한 모습이다. 매니쉬한 느낌의 블랙 팬츠 수트를 착용하여 경건하고 점잖으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69>

Annual Military  
Parade 참석<sup>153)</sup>



<그림 70>

Armistice Day  
Ceremony 참석<sup>154)</sup>



<그림 71>

Bastille Day  
행사 참석<sup>155)</sup>



<그림 72>

French Heritage  
Day 참석<sup>1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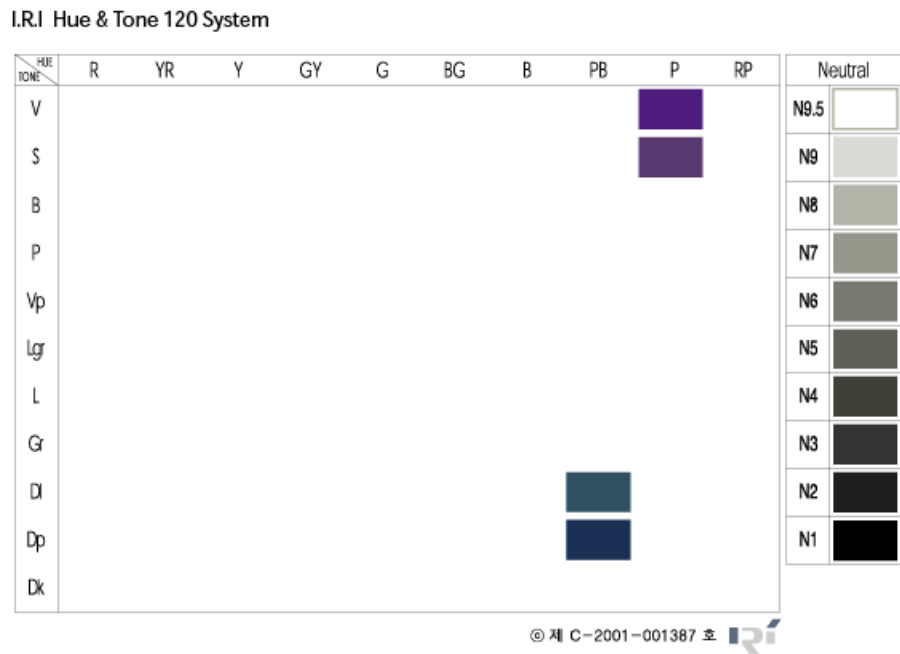
153)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annual-military-parade-along-the-champs-elysees-in-news-photo/113962531>(검색일자:2013.10.22.)

154)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nicolas-sarkozy-takes-part-in-the-armistice-day-ceremony-in-news-photo/113964968>(검색일자:2013.10.22.)

155)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rench-president-nicolas-sarkozy-and-his-wife-carla-bruni-news-photo/108411664>(검색일자:2013.10.21.)

156)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rench-president-nicolas-sarkozy-and-carla-bruni-sarkozy-in-news-photo/108398829>(검색일자:2013.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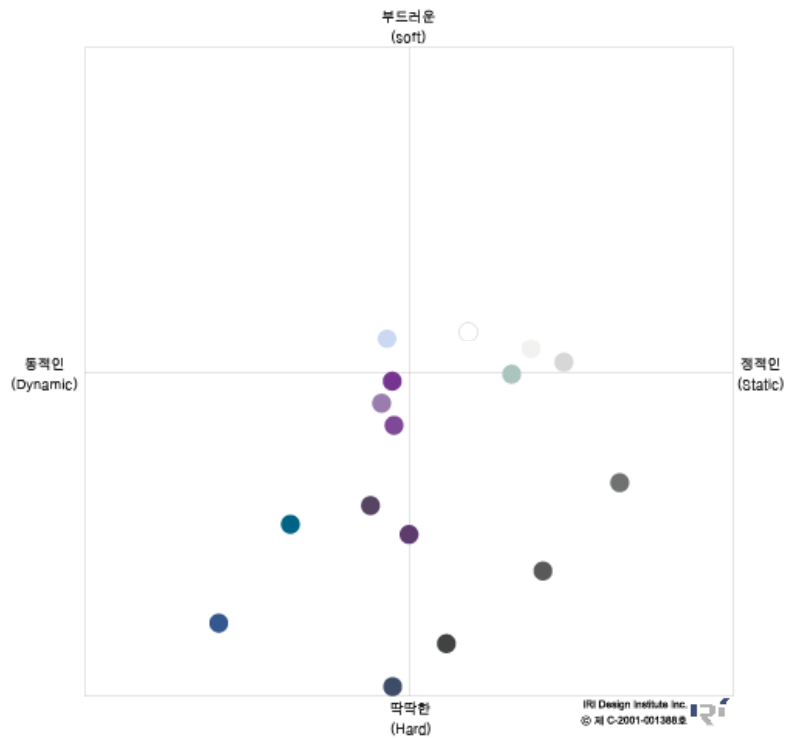
카를라 브루니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73>과 같다. 비비드 톤, 스트롱 톤은 P계열에서만 나타났고, 덜 톤, 딥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브라이트 톤, 페일 톤,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73> 카를라 브루니 국가행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카를라 브루니의 국가행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74>와 같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행사 시 퍼스트레이더로서 격식을 차리고 근엄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착용함으로써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

###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74> 카를라 브루니 국가행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2) 외교활동 시

카를라 브루니의 외교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39개로 R계열은 1개로 분석되어 2.56%를 차지하였고, Y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7.69%를, B계열은 7개로 분석되어 17.95%를, P계열은 5개로 분석되어 12.82%를, 무채색은 23개로 분석되어 58.97%를 차지하였다. 외교활동 시에는 G계열과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활동 시에는 주로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한 이미지가 나타나, 퍼스트레이디로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75>는 2008년 3월, 카를라 브루니가 남편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카를라 브루니가 국민들의 질타를 찬양으로 바꿔놓는데 패션이 큰 역할을 한 의상으로, 자국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회색 코트와 베레모였다. 몸에 꼭 맞게 어울리며 고귀하면서도 대담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녀를 떠올리는 대표적인 의상이다.

<그림 76>은 2008년 3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역시 크리스찬 디올의 그레이 수트에 보라색코트를 매치함으로써, 딱딱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의상에 보라색 코트를 착용하여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되고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77>은 2009년 4월,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자국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블랙 원피스에 흰색 탑을 착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세련되고 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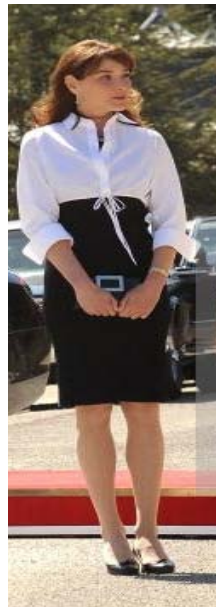
<그림 78>은 2009년 4월, 스페인 El Prado Museum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스트롱 톤의 네이비 컬러 원피스와 클러치를 매치하여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75>  
영국 방문 2<sup>157)</sup>



<그림 76>  
영국 방문 3<sup>158)</sup>



<그림 77>  
스페인 방문 1<sup>1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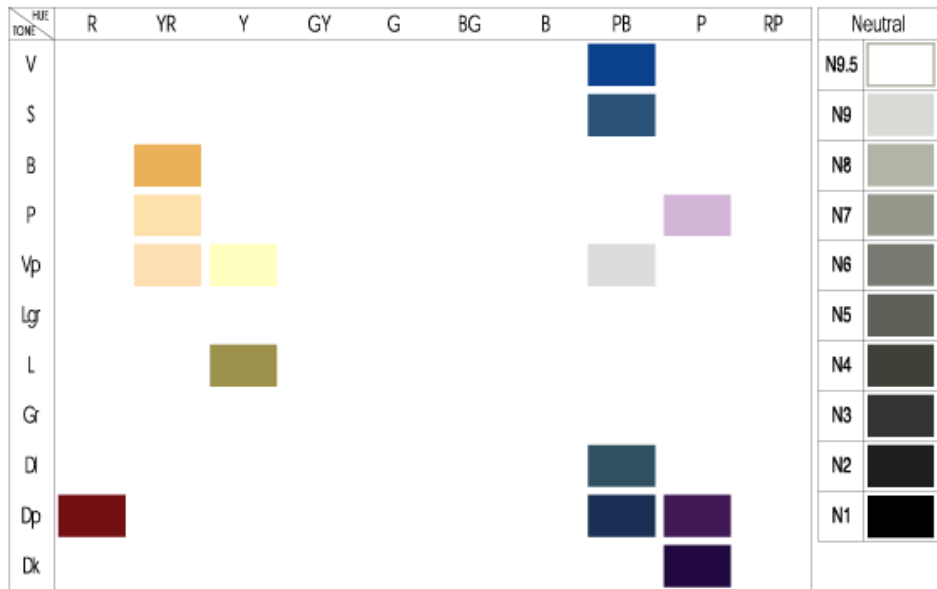


<그림 78>  
스페인 방문 2<sup>160)</sup>

157)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and-prince-philip-duke-of-edinburgh-news-photo/82548625>(검색일자:2013.10.22.)  
 15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rench-president-nicolas-sarkozy-and-carla-bruni-lay-a-news-photo/158111006>(검색일자:2013.10.22.)  
 159)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and-queen-sofia-of-spain-at-el-pardo-news-photo/86331558>(검색일자:2013.10.22.)  
 16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nicolas-sarkozy-carla-bruni-sarkozy-and-queen-sofia-of-news-photo/86251229>(검색일자:2013.10.22.)

카를라 브루니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79>와 같다. 딥 톤은 R,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페일 톤은 YR, 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Y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브라이트 톤은 YR계열에서만, 라이트 톤은 Y계열에서만, 다크 톤은 P계열에서만 나타났으며, 라이트 그레이시 톤, 그레이시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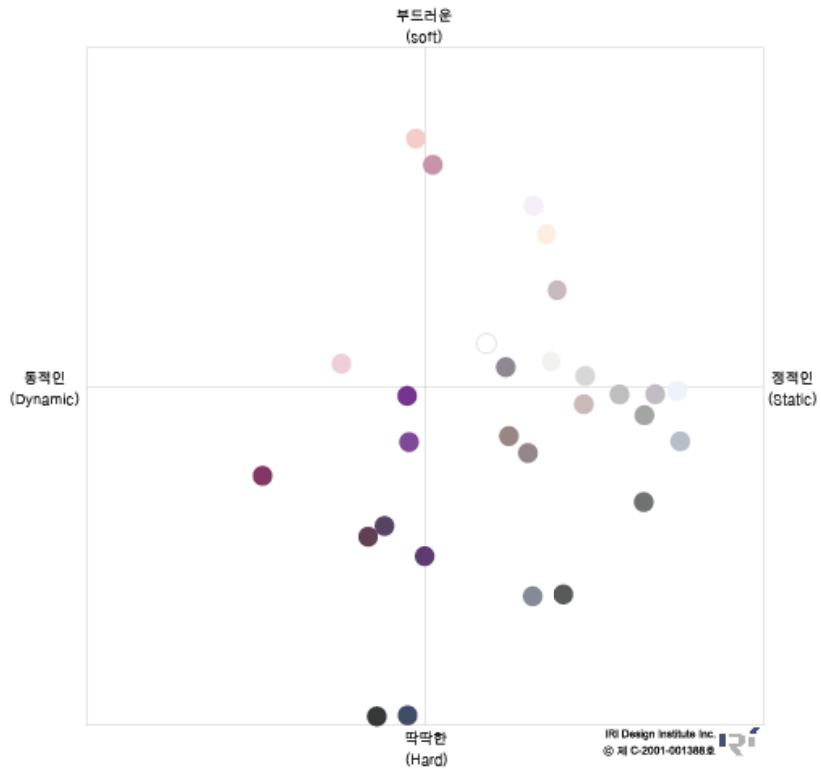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79> 카를라 브루니 외교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카를라 브루니의 외교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80>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외교활동 시 주로 무채색의 의상을 많이 착용하여 차분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T.P.O.에 따라 ‘부드러운’과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을 적절히 착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80> 카를라 브루니 외교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3) 국민접견 시

카를라 브루니의 국민접견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14개로 B계열과 P계열은 각각 2개로 분석되어 14.29%를 차지하였고, 무채색은 10개로 분석되어 71.43%로 분석되었다. 국민접견 시에는 R, Y, G계열과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접견 시에는 엘레강스, 페미닌, 클래식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품위 있고 여성스러운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81>은 2008년 3월,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 때, 엘리제 궁에서의 저녁 만찬 모습이다. 딥 톤의 보라색 이브닝 드레스를 착용하여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심플한 디자인에 은색 귀걸이를 매치함으로써 퍼스트레이디로서 품위를 유지하였다.

<그림 82>는 2008년 3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윈저 궁(Windsor Palace)에서의 저녁만찬 모습이다. 블랙의 심플한 디자인에 어깨부분에는 망사소재로 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실버색의 클러치와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매치함으로써 우아하면서 엘레강스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83>은 2009년 6월, 미국 대통령 내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크리스찬 디올의 화이트 원피스에 검정색 벨트를 매치하여 착용함으로써 세련되고 여성스러우며 우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84>는 2009년 4월, 2009 NATO 회담에 미국 대통령 내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네크라인에 리본장식이 있는 연한 회색의 원피스를 착용하여 심플하고 단아하면서 지적인 페미닌하면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81>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sup>161)</sup>



<그림 82>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알현<sup>162)</sup>



<그림 83>  
미국 대통령  
방문<sup>163)</sup>



<그림 84>  
2009NATO회담 미  
국 대통령 방문<sup>164)</sup>

161)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sarkozy-nicolas-sarkozy-shimon-peres-in-paris-france-news-photo/108385906>(검색일자:2013.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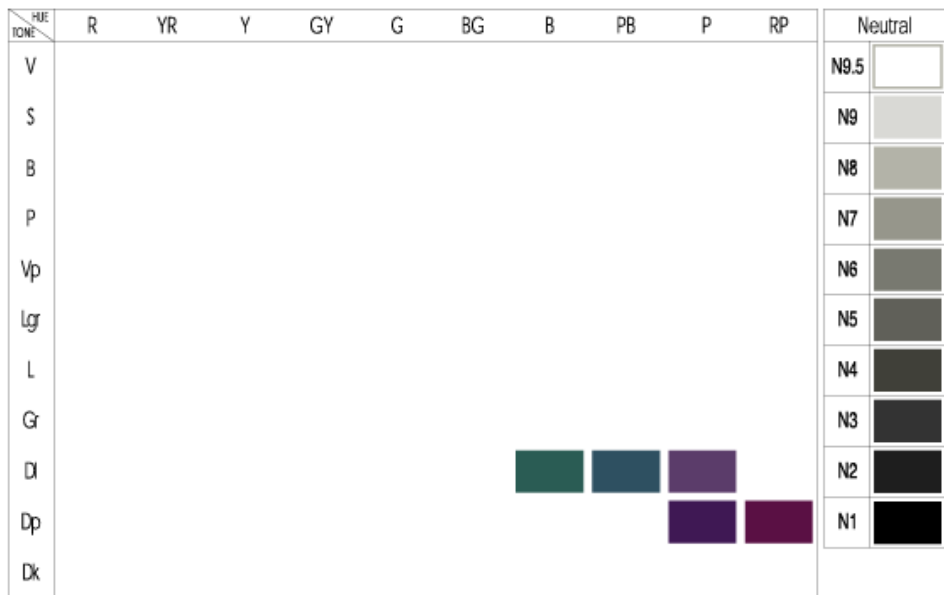
162)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state-visit-of-french-president-nicolas-sarkozy-to-england-news-photo/113955843>(검색일자:2013.10.22.)

163)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french-president-nicolas-sarkozy-us-news-photo/88266834>(검색일자:2013.10.22.)

164)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barack-obama-u-s-first-lady-michelle-obama-news-photo/85803714>(검색일자:2013.10.21.)

카를라 브루니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85>와 같다. 덜 톤은 B,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덜 톤은 P, RP 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브라이트 톤, 페일 톤,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라이트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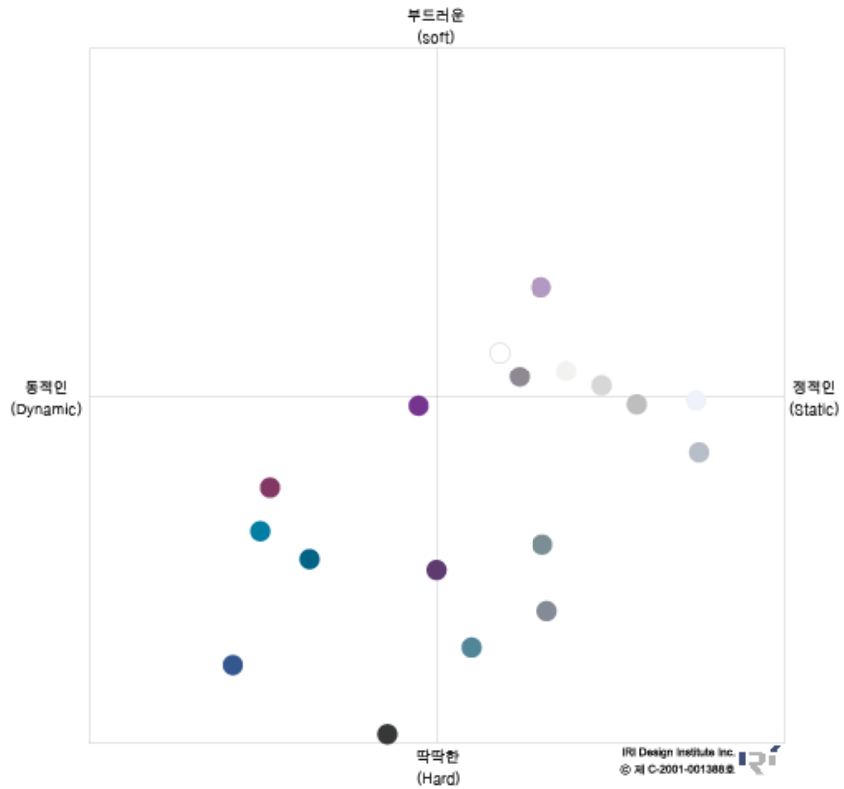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85> 카를라 브루니 국민접견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카를라 브루니의 국민접견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86>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적인’과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활동 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점잖고 차분하면서도 권위적이면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86> 카를라 브루니 국민접견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4) 사회활동 시

카를라 브루니의 사회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37개로 Y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8.11%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4개로 분석되어 10.81%를, 무채색은 30개로 분석되어 81.08%를 차지하였다. R, G, P계열과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활동 시에는 모던, 엘레강스, 매니쉬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세련되고 이지적이며 품위 있는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87>은 200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9<sup>th</sup> 노벨 평화상 국제회담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매니쉬한 느낌의 블랙의 재킷과 팬츠, 그리고 베스트를 착용하여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88>은 2008년 12월,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패션쇼에 참석한 모습이다. 톤 다운된 네이비 컬러의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의 투피스를 착용하여 단정하고 여성스러우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89>는 200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에이즈를 위한 패션 만찬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다. 스트롱한 네이비 컬러의 이브닝 드레스에 다크 네이비 컬러의 클러치를 매치함으로써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90>은 2009년 2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 기금마련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모던한 느낌의 블랙과 화이트 원피스를 착용하여 세련되고 이지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87>  
2008년 노벨평화상  
국제 회담 참석(165)



<그림 88>  
브라질 패션쇼  
참석(166)



<그림 89>  
에이즈를 위한  
패션 만찬 참석(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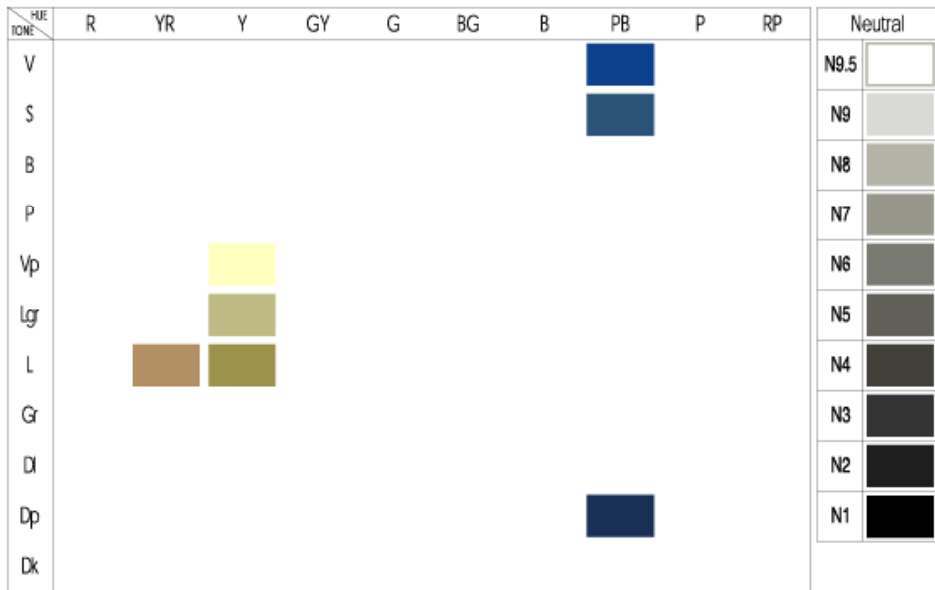


<그림 90>  
국제 에이즈기금마  
련 행사 참석(168)

- 
- 165)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international-childrens-peace-prize-news-photo/84012141>(검색일자:2013.10.22.)
- 166)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attends-a-fashion-show-in-the-favela-news-photo/113965775>(검색일자:2013.10.22.)
- 167)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and-designer-pierre-berger-attend-the-news-photo/84620669>(검색일자:2013.10.22.)
- 168)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bruni-sarkozy-and-stephane-bern-attend-a-r-t-joy-love-news-photo/85265969>(검색일자:2013.10.21.)

카를라 브루니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91>과 같다. 라이트 톤은 YR, Y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딥 톤에서 PB계열에서만,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계열에서만 나타났다. 브라이트 톤, 페일 톤, 그레이시 톤, 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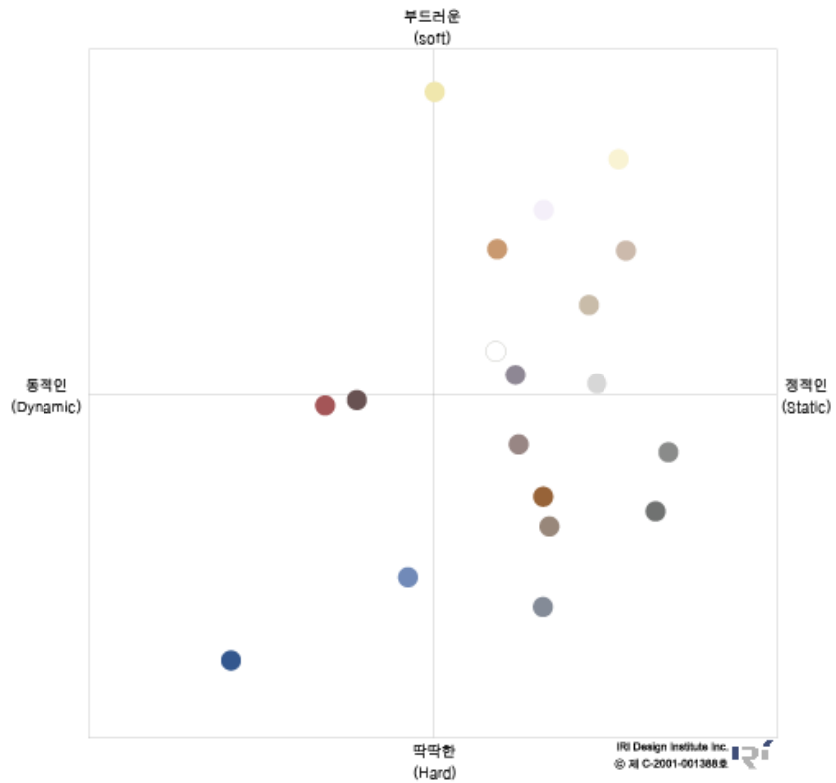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91> 카를라 브루니 사회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카를라 브루니의 사회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92>와 같다. 전체적으로 ‘정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카를라 브루니는 사회 활동 시 모던하고 매니쉬한 이미지를 주로 연출하여 ‘정적인’ 이미지의 의상 컬러를 착용하여 단정해보이면서 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92> 카를라 브루니 사회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5) 개인활동 시

카를라 브루니의 개인활동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총 12개로 Y계열은 3개로 분석되어 25.00%를 차지하였고, B계열은 2개로 분석되어 16.67%를, 무채색은 7개로 분석되어 58.33%를 차지하였다. R, G, P계열과 Multi Color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활동 시에는 클래식, 페미닌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93>은 2008년 7월, 카를라 브루니가 새 앨범을 발표하였을 때, 팬들을 만나는 모습이다. 캐주얼한 느낌의 블랙 정장 속에 하늘색 티셔츠를 착용하여 점잖으면서도 밝은 이미지로 새 앨범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그림 94>는 2008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Madison Avenue에서의 모습이다. 정장 차림이 아닌 베이지색의 코트와 바지, 그리고 덜 톤의 블루 티셔츠를 착용하여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95>는 2008년 9월, 미국의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Museum)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하늘색 가디건,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와 플랫슈즈를 매치함으로써 편안하고 여성스러우며 페미닌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 96>은 2011년 12월, 엘리제 궁에서 열린 Arbre de Noel(성탄 나무, Christmas Tree) 축하행사 후의 모습이다. 덜 톤의 베이지색 니트에 블랙 스키니 팬츠를 매치함으로써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93>  
2008년  
앨범 발표<sup>169)</sup>



<그림 94>  
미국 방문 시 거리  
에서의 모습<sup>170)</sup>



<그림 95>  
Guggenheim  
Museum 방문<sup>171)</sup>



<그림 96>  
엘리제 궁에서의  
모습<sup>172)</sup>

169)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carla-meets-fans-in-paris-france-on-july-11th-2008-news-photo/108415452>(검색일자:2013.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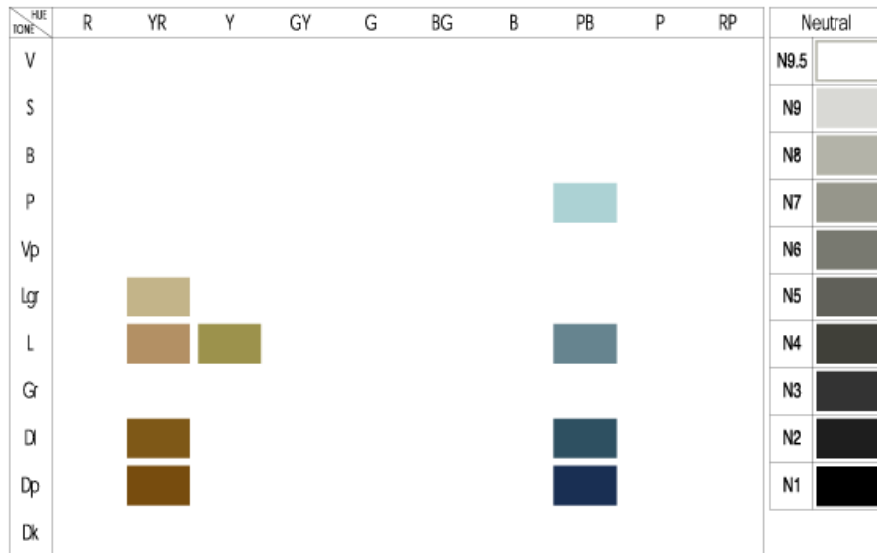
170)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nicolas-sarkozy-of-france-and-carla-bruni-shop-news-photo/82929469>(검색일자:2013.10.22.)

171)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president-of-france-nicolas-sarkozy-and-wife-carla-bruni-news-photo/82967428>(검색일자:2013.10.22.)

172)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french-president-nicolas-sarkozy-and-french-first-lady-news-photo/135785187>(검색일자:2013.10.22.)

카를라 브루니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하면 <그림 97>과 같다. 라이트 톤은 YR, Y,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덜 톤과 딥 톤은 Y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페일 톤은 PB계열에서만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R계열에서만 나타났다.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브라이트 톤, 베리 페일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I.R.I Hue & Tone 120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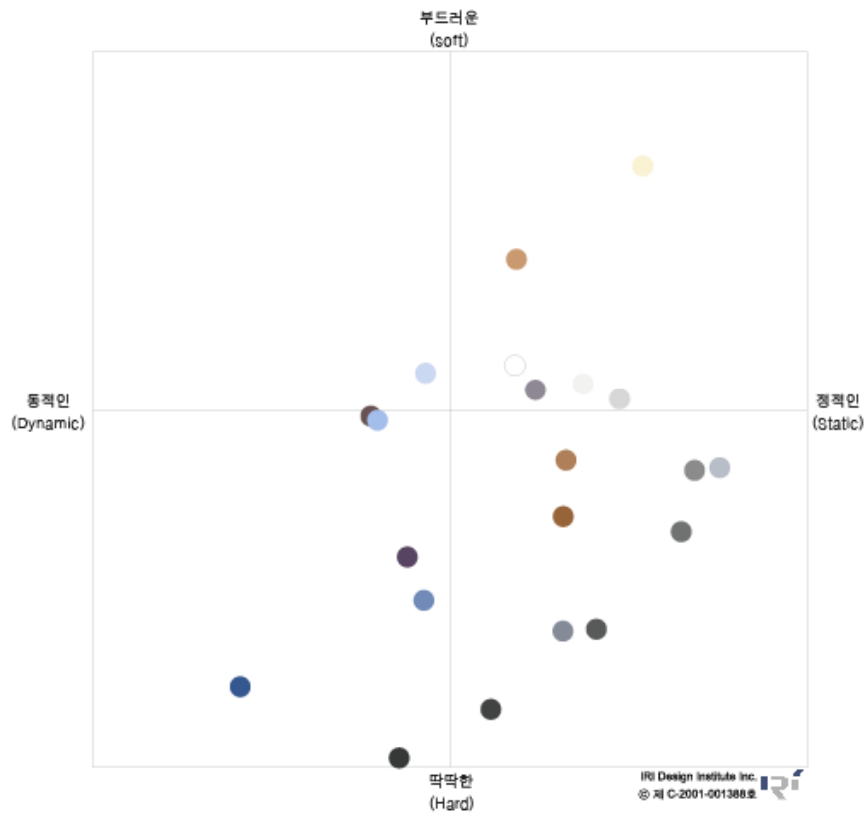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IRI

<그림 97> 카를라 브루니 개인활동 시  
I.R.I. Hue & Tone 120 System

카를라 브루니의 개인활동 시의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면 <그림 98>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적인’과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활동 시 주로 클래식하면서도 페미닌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의상을 착용하여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을 착용하여 세련되고 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98> 카를라 브루니 개인활동 시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카를라 브루니의 상황 별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카를라 브루니 패션 컬러 이미지 분석

상황 별	대표사진	패션 이미지	패션 컬러 분석			패션 컬러 이미지	
			컬러 분석(%)	Hue & Tone 120 System 분석	단색 Image Scale		
국가행사 시		엘레강스 클래식 페미닌 매니쉬	R	-			세련 단정 엘레강스 고귀 우아 권위
			Y	-			
			G	-			
			B	13.33			
			P	13.33			
			Mono	73.33			
			Multi	-			
외교활동 시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	R	2.56			관능 따뜻함 지성 믿음 단정 엘레강스
			Y	7.69			
			G	-			
			B	17.95			
			P	12.82			
			Mono	58.97			
			Multi	-			
국민접견 시		엘레강스 페미닌 클래식	R	-			세련 우아 미래적 엘레강스 고귀 차분 권력
			Y	-			
			G	-			
			B	14.29			
			P	14.29			
			Mono	71.43			
			Multi	-			
사회활동 시		모던 엘레강스 매니쉬	R	-			밝음 지혜 희망 단정 모던
			Y	8.11			
			G	-			
			B	10.81			
			P	-			
			Mono	81.08			
			Multi	-			
개인활동 시		클래식 페미닌	R	-			밝음 지혜 지성 세련
			Y	25.00			
			G	-			
			B	16.67			
			P	-			
			Mono	58.33			
			Multi	-			

앞서 퍼스트레이디들의 역할과 패션 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과정을 국가행사,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으로 나누어,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라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표 5>, <표 6>과 같다.

패션 이미지 중, ‘클래식’과 ‘엘레강스’ 이미지는 퍼스트레이디 의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로, 단정하면서도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을 주로 표현하는 퍼스트레이디들에게 모두 나타난 가장 적합한 이미지이다. ‘페미닌’와 ‘액티브’ 이미지는 미셸 오바마와 케이트 미들턴에게 나타났고, ‘모던’ 이미지는 미셸 오바마와 카를라 브루니에게 나타났고, ‘에스닉’ 이미지는 미셸 오바마에게만 나타났고,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케이트 미들턴에게만 나타났으며 ‘매니쉬’ 이미지는 카를라 브루니에게만 나타났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 패션 이미지 중,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모던’, ‘에스닉’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의상에 진주귀걸이와 진주목걸이를 매치하여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의 ‘엘레강스’ 이미지를 연출하여, 만찬이나 퍼스트레이디로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로 나타났다.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느낌의 ‘에스닉’ 이미지는 미셸 오바마에게만 나타났다.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 패션 이미지 중, ‘클래식’, ‘아방가르드’,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페미닌’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A라인의 원피스,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표현하는 ‘페미닌’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젊은 왕가의 일원으로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우며 아름다운 왕세자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케이트 미들턴에게만 나타난 이미지로, 영국 왕실의 상징인 헤드기어를 착용하면서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카를라 브루니의 경우, 패션 이미지 중, ‘클래식’, ‘매니쉬’, ‘엘레강스’, ‘모던’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모던’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모던은 카를라 브루니를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주었으며, 흰색과 검은색의 고명도 대비효과를 가지는 의상이나, 단아하고 직선적이며 딱딱한 선으로 이루어진 실루엣과 함께 고급스러운 소재로 모던한 세련미를 과시하며 퍼스트레이디로서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매니쉬’ 이미지는 카를라 브루니에게만 나타난 이미지로, 시크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의 수트를 자주 착용하면서 ‘매니쉬’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패션 컬러 이미지의 경우, 무채색은 가장 클래식하고 점잖으며 격식을 차리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퍼스트레이디들 모두에게 나타난 컬러이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 다양한 컬러의 선택으로 화려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이미지를 주로 연출하였고,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 로열블루를 선택하여 왕실의 일원으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를라 브루니의 경우, 무채색 계열 및 보라색, 파란색의 의상을 주로 선택하여 모던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표 5>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이미지

퍼스트레이디	패션 이미지							
	클래식	아방가르드	매니쉬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모던	에스닉
미셸 오바마	●			●	●	●	●	●
케이트 미들턴	●	●		●	●	●		
카를라 브루니	●		●		●		●	

<표 6>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분석

		미셸 오바마	케이트 미들턴	카를라 브루니	
인물 특성		-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모던, 에스닉 - 다양한 컬러의 의상 선택	- 클래식, 아방가르드, 페미닌, 엘레강스, 액티브 - 로열블루 컬러 사용	- 클래식, 매니쉬, 엘레강스, 모던 - MONO COLOR 사용	
상황별 패션	국가행사 시	사진			
		Image Color	클래식, 엘레강스 MONO, P, B, R, Y, MULTI, G	클래식,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MONO, B, R, Y, G	엘레강스, 클래식, 페미닌, 매니쉬 MONO, B, P
	외교활동 시	사진			
		Image Color	엘레강스, 페미닌 MONO, B, Y, MULTI, P	페미닌, 아방가르드, 엘레강스 B, R, Y, MONO, G, P, MULTI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 MONO, B, P, Y, R
	국민접견 시	사진			
		Image Color	엘레강스, 페미닌, 모던 MONO, B, R, P, MULTI, G, Y	페미닌, 엘레강스 Y, P	엘레강스, 페미닌, 클래식 MONO, B, P
	사회활동 시	사진			
		Image Color	페미닌, 액티브, 에스닉 MONO, MULTI, R, B, Y, G, P	페미닌, 엘레강스, 아방가르드 MONO, B, R, Y, G, MULTI, P	모던, 엘레강스, 매니쉬 MONO, B, Y
	개인활동 시	사진			
		Image Color	페미닌, 에스닉, 액티브 MONO, B, MULTI, P, R, Y, G	페미닌, 액티브 B, MONO, G, MULTI	클래식, 페미닌 MONO, Y, B

## IV. 결론

현대의 퍼스트레이디는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퍼스트레이디들은 그 시대의 패션아이콘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퍼스트레이디들의 역할과 패션 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영국의 왕세자비의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과정을 국가행사, 외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패션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미셸 오바마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뱀 톤은 R, YR, BG, PB, R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크 톤은 YR,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스트롱 톤은 R,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 YR, RP계열에서, 브라이트 톤은 Y, B, R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Y, GY계열에서, 페일 톤은 Y, B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B계열에서, 덜 톤은 PB계열에서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편이나, '정적인'보다는 '동적인'쪽으로 약간 빈도가 높으며 '부드러운'보다는 '딱딱한'쪽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셸 오바마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비비드 톤은 Y, B,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뱀 톤은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브라이트 톤과 덜 톤은 B,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YR,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스트롱 톤은 PB계열에서 페일 톤과 라이트 그

레이시 톤은 B계열에서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적인’, ‘딱딱한’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미셸 오바마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스트롱 톤은 YR, B, PB, RP계열, 딥 톤은 BG, PB, P, R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R, YR, Y계열에서, 브라이트 톤은 B, PB, RP계열에서, 페일 톤은 PB, P, RP계열에서, 다크 톤은 R, PB,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베리 페일 톤은 Y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미셸 오바마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브라이트 톤은 Y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컬러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이 GY, P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컬러에서 나타났다. 페일 톤은 R, Y, BG, B, P, RP계열에서 나타났고, 딥 톤은 YR, Y, BG,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스트롱 톤은 G, BG, B, PB, P, RP계열에서 나타났다. 라이트 톤은 Y, P, R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GY, PB계열에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 P계열에서, 덜 톤은 G,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PB, RP계열에서 나타났고 그레이시 톤은 YR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간 ‘동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미셸 오바마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페일 톤은 BG, PB, RP계열에서, 딥 톤은 YR, P, RP계열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Y, PB계열에서 덜 톤은 B, 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스트롱 톤은 PB계열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케이티 미들턴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딥 톤은 G, BG, B,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은 R, PB계열에서, 스트롱 톤은 B, P계열에서, 페일 톤은 R, Y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브라이트 톤, 덜 톤, 다크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적인’ 이미지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으며, ‘부드러운’과 ‘딱딱한’ 이미지가 고르게 나타났다.

케이트 미들턴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브라이트 톤은 G, BG, 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트롱 톤은 PB, P계열에서, 페일 톤은 Y, PB계열에서, 딥 톤은 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Y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YR계열에서, 덜 톤은 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적인’과 ‘딱딱한’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케이트 미들턴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비비드 톤은 P, RP계열에서 나타났으며, 페일 톤은 YR계열에서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케이트 미들턴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딥 톤은 Y, G, RP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이트 톤은 Y, G, BG, PB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R, YR, Y, BG계열에서, 라이트 톤은 R, Y, B, PB계열에서 다크 톤은 YR, Y, B,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은 R, B, PB계열에서, 페일 톤은 R, Y, PB계열에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 GY, PB계열에서 나타났고, 스트롱 톤은 R계열에서만,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케이트 미들턴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다크 톤은 YR,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비비드 톤, 페일 톤, 딥 톤은 RP계열에서, 브라이트 톤,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간 ‘동적인’ 이미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나 고르게 이미지가 나타났다.

카를라 브루니의 국가행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비비드 톤, 스트롱 톤은 P계열에서만 나타났고, 덜 톤, 딥 톤은 PB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카를라 브루니의 외교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딥 톤은 R,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페일 톤은 YR, P계열에서, 베리 페일 톤은 Y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덜 톤은 PB계열에서만, 브라이트 톤은 YR계열에서만, 라이트 톤은 Y계열에서만, 다크 톤은 P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카를라 브루니의 국민접견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덜 톤은 B, PB, P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딥 톤은 P, RP계열에서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적인’과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카를라 브루니의 사회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라이트 톤은 YR, Y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딥 톤에서 PB계열에서만, 베리 페일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적인’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카를라 브루니의 개인활동 시의 Hue & Tone을 분석한 결과, 라이트 톤은 YR, Y, PB계열로 모든 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덜 톤과 딥 톤은 YR, PB계열에서 나타났다. 페일 톤은 PB계열에서만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YR계열에서만 나타났다.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적인’과 ‘딱딱한’ 이미지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여성 정치인, 여성 지도자, 여성 전문가 및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져 자신의 이미지 표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퍼스트레이디의 국가행사, 외

교활동, 국민접견, 사회활동, 개인활동 시에 따른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각국의 문화와 정서, 사회적 상황, 배경 등 그리고 퍼스트레이디의 성격 및 취향에 따라 패션 이미지 및 패션 컬러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문적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격 및 취향을 바탕으로 직업이나 활동 영역에 적합한 세련되고 긍정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패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Caroline Jones (2013). Kate's Style: Smart, Chic Fashion from a Royal Role Model. London : Barron's Educational Series.
- Horn, M.J., Gurel, L.M.(1998). The Second Skin. 서울 : 도서출판 까치.
- Katie Nicholl(2013). Kate: The Future Queen. London : Weinstein Books.
- Jessica Jayne(2012). The Duchess of Cambridge: How Kate Middleton Became A Future Queen (Royal Princesses). London : Platinum Publishing.
- Life Magazine (2011). The Royal Wedding of Prince William and Kate Middleton. London : Little Brown & Co Inc.
- Marcia Moody (2013). Kate: A Biography. London : Michael O'Mara .
- Sara Cywinski(2011). Kate: Style Princess: The Fashion and Beauty Secrets of Britain's Most Glamorous Royal. London : John Blake.
- 권희경(2011). 프렌치시크 파리지엔 스타일. 서울 : 북웨이.
- 김미현 외(2003). 컬러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 예림출판사.
- 김승민, 이원복(2009). 퍼스트레이디를 알면 미국이 보인다. 경기 : 김영사
- 김영인 외(2009). 패션의 색채언어. 서울 : 교문사.
- 김유순 외(2004). COLOR & PERSONAL COLOR 색채와 색채진단. 서울 : 예림.
- 김재희(2010). 여자, 미셸을 탐하라. 서울 : 눈과마음.

김주경 외(2010). 컬러스토리. 경기 : 교문사.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경기 : 교문사.

김효정 외(2004). 토털코디네이션. 서울 : 정담미디어.

김희숙 외(2009). 스타일메이킹. 경기 : 교문사.

데이비드 콜버트, 박수연 역(2009). 딸과 함께 읽는 미셸 오바마 이야기 기죽  
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 : 부키.

라이트풋, 박선영 역(2009). 미셸 오바마 변화와 희망의 퍼스트레이디. 서울 :  
부키.

리자 먼디, 안진이 역(2009).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열정 미셸 오바마 담대  
한 꿈. 서울 : 청림출판.

박숙현(2002). 패션 이미지 메이킹. 서울 : 예학사.

박숙현(2007). 패션 이미지 메이킹. 서울 : 예학사.

수잔 스위머, 최유나 역(2009). 미셸 오바마 스타일. 서울 : 장서가.

신상옥, 오경화 외(2001). 현대 패션과 의생활. 서울 : 교문사.

신효정(2003). 패션코디. 서울 : 시공사.

심우찬(2010). 프랑스여자처럼. 서울 : 시공사.

유태순, 박희숙 외(1999).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학지사.

유태순, 조기여 외(2000). 색채학-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성화.

윤혜림(2008). 색채관리와 색채디자인. 서울 : 도서출판 국제.

이경손 외(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 교문사.

이경손 외(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 교문사.

이경희 외(2001). 패션 디자인 발상. 서울 : 교문사.

이숙연 외(2009). 코디네이트 미학. 서울 : 훈민사.

이정주(2012). 패션과 이미지메이킹. 서울 : 신광출판사.

전선정 외(2004). 코디네이션 Costume & Hair. 서울 : 청구문화사.

조필교, 정혜민(1999).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 전월문화사.

케이티 마튼, 이창식 역(2002). 숨은 권력자, 퍼스트 레이디. 서울 : 이마고  
키아라 제미올리, 강현주 역(2010). 완벽한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 서울  
: 디자인이음.

크리스틴 리샤르, 에두아르 불롱 클뤼젤, 이주영 역(2010). 카를라 브루니 사  
랑할 자유. 서울 : 북쇼컴퍼니.

## 학위논문

권현아(2003).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대통령 재임기간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권형신(2003). 색채를 활용한 패션 이미지메이킹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 전공.

김수운(2001).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김유정(2010). 한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른 패션 이미지.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백민영(2010). 한국적 색채 특성 분석에 따른 트렌드 색채기획.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패션산업학과.

상윤진(2012). 로열 계층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심은아(200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 섬유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안향신(1993).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1990년대 색채경향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윤주(1999).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박사학위논  
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 이종임(2011). 2012년 대선 가능 후보의 패션 스타일 고찰 및 제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패션 아트학과.
- 이현주(1999). 노란색 이미지에 대한 의복 디자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 이희재(2006).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2000년에서 2005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임은숙(2013).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색채전공.
- 추선형(2000). 색채와 질감에 의한 패션 소재 이미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 학회지논문

- 김미경(2012).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패션폴리틱스 현상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6(5). 88-105.
- 배효정(2011). 동서양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패션·색채이미지 분석.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3). 199-213.
- 이영재(2011). 현대 퍼스트레이디 룩의 형성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467-479.
- 장성은, 정혜정(2005).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6(6). 97-108.
- 정선주(2012). 퍼스트레이디 룩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미셸오바마, 카를라 브루니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복디자인문화학회지, 18(3), 479.
- 정혜정(2007). 퍼스트레이디 시절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 연구. 한복문화학회지.

10(1). 27-42.

한지은, 정성혜(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패션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89-102.

## 참고 사이트

[www.gettyimages.com](http://www.gettyimages.com)

[whatkatewore.com](http://whatkatewore.com)

[www.carlabrunisarkozy.org](http://www.carlabrunisarkozy.org)

[michellesstylelist.com](http://michellesstylelist.com)

[www.fashionchannel.co.kr](http://www.fashionchannel.co.kr)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www.trendpost.com](http://www.trendpost.com)

[www.ap.org](http://www.ap.org)

[blog.naver.com](http://blog.naver.com)

[news.naver.com](http://news.naver.com)

[media.daum.net](http://media.daum.net)

#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Expression of First Lady's Fashion Color

Yun, Ho Ju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Society develops, Women's social activities would increase, and the interests of female leader increase as well. As a woman who represents the country, First lady attracts the attention of the people(Public) and most of all, fashion of the lady deserves the spotlight. First ladies play a important role as a fashion icon of the era and the color is one of the design strategy which is the easiest way to deliver message and extend the influence in 'fashion politics' they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shion image of The First lad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rance and The Duchess of Cambridge of United Kingdom based on fashion color. First, investigator surveyed what kinds of roles first ladies play and what circumstances they work in to examine the relation with their role and fashion color image. First lady's roles and process of forming their images were categorized by state occasion, diplomatic activity,

state guest reception, social activity, personal activity and investigator researched how to express the fashion image and fashion color image according to First lady's role.

This study analyzed photos which show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cles and blog, mainly 'www.gettyimages.com', international website during their tenure. Based on photos, investigator studied and analyzed feature of color image about personal fashion, distinguished color using 'Munsell Color System' and analyzed color using 'www.iricolor.com' I.R.I(Image Research Institute)'s 'Hue & Tone 120 System', 'Single Color Image Scal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zing First lady's fashion color image.

Michelle Obama's fashion is analyzed as follows.

'Classic', 'Feminine', 'Elegant', 'Modern', 'Ethnic' images appeared in Michelle's fashion. As positive, confident and bright personality, she selects colorful clothes and coordinates fashion in suitable T.P.O.. And she dresses 'Ethnic' clothes which have peculiar print, so that showed unique, confident and dignified First lady different from others who express 'Classic', and 'Elegant' images.

Fashion images of state occasion appeared as 'Classic', 'Elegant'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P, B, R, Y, Multi color, G shade. Fashion images of diplomatic activity appeared as 'Elegant', 'Feminin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Y, Multi color, P shade. Fashion images of state guest reception appeared as 'Elegant', 'Feminine', 'Modern'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R, P, Multi color, G, Y shade. Fashion images of

social activity appeared as 'Feminine', 'Active', 'Ethnic'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Multi color, R, B, Y, G, P shade. Fashion images of personal activity appeared as 'Feminine', 'Ethnic' 'Activ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Multi color, P, R, Y, G shade.

Kate Middleton's fashion is analyzed as follows.

'Classic', 'Avant-garde', 'Feminine', 'Elegant', 'Active' images appeared in Kate's fashion. She expressed as a beautiful and gorgeous The Duchess of Cambridge using royal blue color which is a symbol of Royal and wearing an avant-garde style headgear.

Fashion images of state occasion appeared as 'Classic', 'Feminine', 'Elegant', 'Avant-gard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R, Y, G shade. Fashion images of diplomatic activity appeared as 'Feminine', 'Avant-garde', 'Elegant'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B, R, Y, Mono, G, P, Multi color shade. Fashion images of state guest reception appeared as 'Feminine', 'Elegant'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Y, P shade. Fashion images of social activity appeared as 'Feminine', 'Elegant', 'Avant-gard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R, Y, G, Multi color P shade. Fashion images of personal activity appeared as 'Feminine', 'Activ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B, Mono, G, Multi color shade.

Carla Bruni's fashion is analyzed as follows.

'Classic', 'Mannish', 'Elegant', 'Modern' images appeared in Carla's fashion. As a First lady, She mainly took mono shade clothes and expressed mannish, neat, refined look.

Fashion images of state occasion appeared as 'Elegant', 'Classic', 'Feminine', 'Mannish'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P shade. Fashion images of diplomatic activity appeared as 'Classic', 'Elegant', 'Feminin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B, P, Y, R shade. Fashion images of state guest reception appeared as 'Elegant', 'Feminine', 'Classic'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P shade. Fashion images of social activity appeared as 'Modern', 'Elegant', 'Mannish'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B, Y shade. Fashion images of personal activity appeared as 'Classic', 'Feminine' and fashion color images appeared in order Mono, Y, B shade.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rise female's social position, female politicians, female leaders, female specialists and women who have social position are increasing and those women who widen their working field in sociality are concerned about express their images. On this study, as a result of First lady's fashion image and fashion color image according to state occasion, diplomatic activity, state guest reception, social activity, personal activity, Fashion image and fashion color image appeared differently depend on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France's culture, sentiment, social situation, background and First lady's personality and taste. By building academic data, It has significance for women as using the fashion data for expressing the refined and positive image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occupation and work field based on their personality and taste.